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흑돼지’를 통해 본 2000년대 이후
제주 양돈산업의 구조 변화

제주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김민범

2022년 6월

‘흑돼지’를 통해 본 2000년대 이후 제주 양돈산업의 구조 변화

김민범

지도교수 백영경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김민범의 사회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고성만



위 원 전원근



위 원 백영경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년 6월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Jeju Pork Industry since 2000:

A Case Analysis of "Jeju Black Pig"

by

Minbeom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

Major: Sociology

Supervisor: Prof. Young-Gyung Paik

Examining Board: Prof. Sungman Koh
Prof. Wonkeun Chun
Prof. Young-Gyung Paik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June, 2022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제주 흑돼지의 상품화 과정을 통해 2000년대 이후 제주 양돈산업의 구조변화에 대해서 알아본다.

2000년 이후 흑돼지는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제주를 대표하는 상품이 되었다. 제주에서 흑돼지는 단순히 양돈장에서 사육된 돼지고기일 뿐만이 아닌 제주의 대표 이미지, 관광문화 콘텐츠 등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주에서 흑돼지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과 과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2000년대 전후 관광개발, 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지정 등 제주 사회의 변화와 연관시켜 고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양돈 농장주뿐만 아니라 제주도 정책, 당시 사회변화, 후계농, 이주노동자, 소비자, 관광객 등 여러 주체들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며 흑돼지의 현재 위치와 의미, 그리고 나아가 향후 제주 양돈산업의 미래에 대해 모색할 수 있다.

제주 흑돼지와 돼지를 사육하는 생산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후계농 등의 새로운 주체 등장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인력구조 변화를 참여관찰을 통해 알아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승계문제와 인력부족 문제 등 양돈장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주의 ‘청정’ 이미지, 관광산업, 경제와 깊이 연계 되어 있는 제주 양돈산업은 악취 및 분뇨처리와 관련된 환경문제, 마을분쟁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악취절감 및 분뇨처리 등의 과학적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문제는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장으로부터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제주 관광, 축산업 정책, 육류 소비 습관, 생산 현장의 변화 등 다방면에서 살피고 여러 주체들이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통해 문제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범위와 방법	2
3. 선행연구 검토	5
4. 연구 목적	12
II. 제주 흑돼지 상품화 과정과 요인들	14
1. 제주 돈육브랜드 활성화 정책의 역사	15
2. 관광·문화 상품에서 음식으로: 흑돼지의 변화	20
3. 유통정책을 통한 제주 돼지 만들기	24
III. 2000년대 이후 제주 양돈농가 구조 변화	30
1. 양돈업의 전업화·규모화	30
2. 양돈 농장주 고령화	40
IV. 변화하는 제주 양돈산업과 향후 전망	51
1. 양돈현장의 행위 주체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	51
2. 흑돼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63
V. 결론	68
참고문헌	72
Abstract	77

I. 서론

1. 연구 배경

‘2019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에서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음식으로 제주 흑돼지 요리가 선정된 바 있다. 어느 시점부터 흑돼지는 청정한 제주의 이미지를 담은 상품으로 부각되었다. 질병으로부터 청정한 안전 식품이라는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흑돼지는 제주를 대표하는 상품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 흑돼지를 육지의 양돈용 돼지와는 완전히 다른 제주의 토종 돼지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실제로 제주 흑돼지 고기를 소비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대 이후이다. 이 시기부터 돼지고기의 전반적인 브랜드화 경향 속에서 흑돼지의 차별성을 내세우는 상품이 출시되기 시작했고, ‘제주 흑돼지’라는 단어 역시 신문 등 매체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제주 흑돼지가 하나의 상품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당시 국내 돈육 브랜드화 경향 속에서 제주도 당국의 양돈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보호 정책을 들 수 있다. 이에 더해 제주의 관광개발, 국제자유도시 지정 등으로 인한 제주를 찾는 내외국 방문객이 증가한 사실 또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제주에서 양돈이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 장려되고 관광산업과 돈육 소비가 연계되기 시작하면서, 흑돼지는 제주의 관광과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상품으로 등장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00년대 이전 막연하게 제주 전통문화의 일부로서 육지와는 다른 이질성을 상징하던 흑돼지는 살아 있는 돼지였다면, 지금 제주를 대표하는 상품으로서 알려진 흑돼지는 돼지고기로서 소비되는 돼지라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바로 제주 흑돼지가 제주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등장하는 과정이 2000년대 이후 양돈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이후 양돈산업의 미래를 분석하는 데서도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되므로 이를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청정 이미지에 기대어 인기를 누리고 있는 흑돼지라는 상품 이면에는, 흑

돼지를 포함한 제주 돼지를 사육하는 생산현장이 환경오염과 악취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이 있다.¹⁾ 노동자들은 대표적인 3D 업종으로서 양돈장을 기피하며, 공장식 축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²⁾ 이에 따라 제주의 양돈산업은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미 제주의 중요한 일차 산업이자 관광과 유통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단순히 폐지와 축소만이 대안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제주의 산업과 관광이 연계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흑돼지가 제주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등장하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후 좀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2000년대 이전 1990년대 초반부터 흑돼지를 포함하여 돼지를 기르는 제주의 양돈농가는 제주도의 양돈산업 육성 및 대일수출 정책으로 타시도에 비해 전업화의 시작이 빨랐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00년대 이후 국내 돈육 상품들의 브랜드화가 이루어지면서 양돈장의 규모가 커지고 현대화·전문화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고 2010년대 이후 세대교체에 따른 양돈장 승계나 매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제주 양돈농가는 빠른 산업화를 겪게 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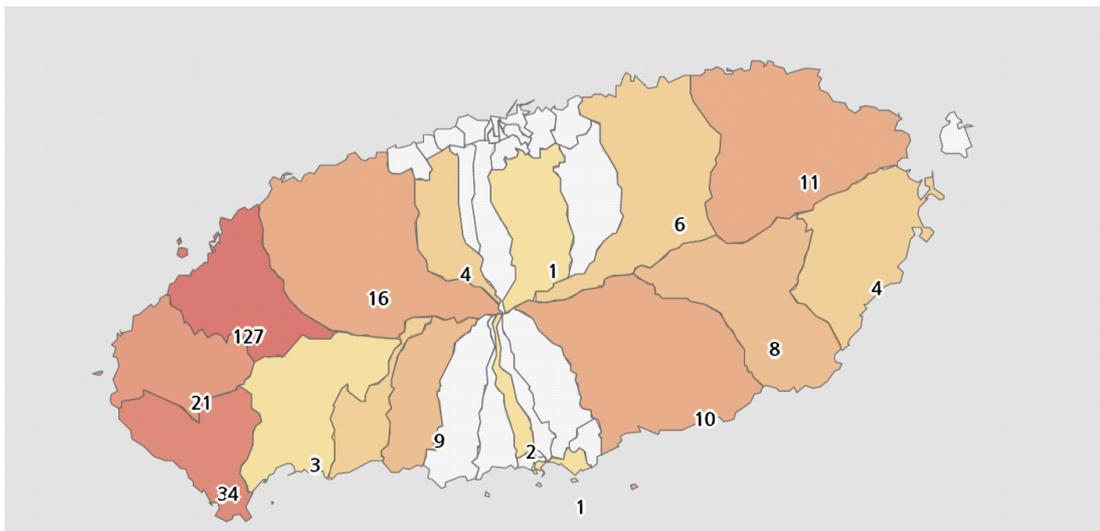
-
- 1) 제주특별자치도, 2021, 제주 환경보전을 위한 도정정책 방향 도민 인식조사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뒤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생활쓰레기(53.4%), 지하수 오염(17.5%), 해양쓰레기(11.4%), 미세먼지(9.1%), 축산악취(7.6%) 순으로 조사됐다.
 - 2) 제주연구원, 2017, 제주지역 농업 고용노동 현황 및 정책 방향
2016년 9월 기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제주지역 내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총 2,660명 중 그중에서 종사자 수가 높은 분야는 제조업 844명, 양식업 702명, 축산업 52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상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 대부분의 이주노동자가 근로하고 있다.
 - 3) 최근 10년간 제주시 지역 양돈장 수는 16% 감소했지만 기르는 돼지 숫자는 오히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농장 수는 184곳이며, 이곳에서 돼지 41만 2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가 당 평균 2240마리 꼴이다. 2011년과 비교하면 농가는 219곳에서 35곳 줄었으며, 돼지 숫자는 35만8000마리에서 5만4000마리 늘어났다. 특히 2017년에는 42만3000마리로 정점을 찍었다. 양돈장 대표가 바뀐 경우도 44곳이나 된다. 상속·증여 16곳, 매매 28곳이다(제주의 소리. 2021. 8. 15.)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이후 제주 양돈산업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국 농축산업 전반의 변화에 대해 조사했다. 이를 위해 논문, 연구보고서, 신문기사, 국가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양돈산업의 규모, 구조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축산학과의 논문자료,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 통계청 및 농촌진흥청 등의 1차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제주 흑돼지 상품화 등 제주 양돈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료 조사를 위해 제주축산사를 바탕으로 제주도 정책자료, 신문기사를 참조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축산업 및 양돈산업의 생산현장 연구는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제주 양돈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장주와 후계농, 이주 노동자,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환경운동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양돈장 면접조사는 제주시 한림읍과 애월읍을 중심으로 하였다. 한림읍의 경우 127개 양돈농가가 밀집해 있고 제주 전체 돼지 사육두수의 약 41%를 차지하는 최대 양돈단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면접조사 섭외에서 접근성이 용이했고 양돈장 재건축 등 양돈현장의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제주 읍면동별 돼지 농가 분포도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포털, 연구자 작성)

<표 1> 제주 읍면동별 돼지 농가

구분	읍면동명	농가수
제주시	구좌읍	11
제주시	노형동	1
제주시	애월읍	16
제주시	오등동	1
제주시	조천읍	6
제주시	한경면	21
제주시	한림읍	127
제주시	해안동	3
서귀포시	남원읍	10
서귀포시	대정읍	34
서귀포시	대포동	4
서귀포시	상예동	2
서귀포시	색달동	2
서귀포시	서홍동	2
서귀포시	성산읍	4
서귀포시	안덕면	3
서귀포시	토평동	1
서귀포시	표선면	8
서귀포시	하원동	1
서귀포시	회수동	4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포털)

양돈장 승계와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자료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농장주 대상 면접조사는 농장 현황과 인력 고용형태, 승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하였고 이주노동자 면접조사를 통해 한국에 온 계기, 일상, 귀국 후 계획 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설문내용과 함께 채록한 파일은 전사하여 본고에 부분적으로 인용하였다.

제주 양돈농가를 대표하는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인터뷰를 통해 전반적인 제주 양돈업 상황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환경운동가 인터뷰를 통해서도 현재 제주양돈업이 갖고 있는 환경문제 또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표 2> 면접 조사 대상

농가명	축종	농가위치	이주노동자	농장규모(두)	비고(경영주체 등)
A	흑돼지	제주시 한림읍	2명(태국)	1,800	2세대, 흑돼지
B	돼지	제주시 한림읍	2명(캄보디아)	2,500	1,2세대
C	돼지	제주시 애월읍	4명(네팔)	4,500	1,2세대, 농장장
D	돼지	제주시 애월읍	4명(캄보디아, 네팔)	6,000	2세대
E	돼지	제주시 한림읍	내국인	3,000	2세대, 농장장
F	돼지	제주시 한림읍	1명(중국)	2,000	1세대
G	돼지	제주시 노형동	1명(캄보디아)	2,000	1,2세대, 농장장
H	한우	제주시 회천동	1명(베트남)	470	2세대
I	한우	제주시 구좌읍	1명(네팔)	220	2세대
J	낙농	제주시 구좌읍	2명(네팔)		2세대
K	-	제주시 한림읍			환경지킴이
L	-	제주시내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 조사기간: 2021.03.~2022.03.

- 조사방법: 인터뷰 채록, 설문지 작성

3. 선행연구 검토

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제주 흑돼지가 관광·문화 자원으로 상품화될 수 있었던 요인과 역사에 대해 살펴보며 이에 따른 제주 양돈산업 구조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양돈산업을 둘러싼 변화와 향후 전망에 대한 고찰을 위한 연구이다.

이에 선행연구는 축산업의 현대화·브랜드화, 축산농가 구조 변화, 승계 및 후계농,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1) 축산업의 현대화, 브랜드화

한국의 축산업은 현대화, 공장식 축산의 도입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그 배경으로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축산장기발전대책’이 1990년대 중반 축산농의 전업·기업화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또 1970년대 말부터 제기된

도축장 정비와 판로 현대화 등 축산물의 물류·유통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산업 축산, 즉 축산업의 미국적 현대화가 완성되어 간다(송인주, 2018). 이로 인해 돼지는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기르던 가축의 형태에서 고기 생산을 위해 따로 지어진 공장식 설비에서 사육되는 소비재가 되어간다.

제주의 경우에는 한국의 축산업 현대화 시기보다 이른 1962년 이시돌협회에서 한림을 중심으로 시작한 대규모 양돈산업을 시작으로 현대화된 축산방식을 도입하고 사육방식 등을 알린다.

이시돌협회의 배합사료공장이 설치되었고 양돈배합사료를 제조하여, 이시돌 양돈장과 개척농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하였다. 이시돌협회는 중산간 부락 인근에 양돈 개척농가단지를 형성하는 한편, 금악리에 대규모 번식돈 및 비육돈 양돈장을 개설하여 회원의 교육과 양돈 개척농가의 양돈사업을 후원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1970년대는 양돈 규모가 농가부업형태에서 전업 양돈농가 형태로 전환되면서 돈사 형태도 점차 개량되어 돼지사육 전용 돈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김자경, 2017).

이시돌협회의 이와 같은 사업은 제주 양돈농가의 전업화를 앞당기고 현대화된 시설을 도입하며 금악마을의 발전을 도모하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양돈장 집중화로 인한 악취문제 등 현재 마을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후 제주도는 양돈산업을 주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돼지 질병으로부터의 ‘청정’ 이미지 구축을 위해 1999년 돼지열병 청정화 선언을 한다. 이는 추후 제주의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금지 정책’ 시행의 계기가 된다.

제주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알려지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수출 또한 증가하였다. 1993년도에는 돼지고기 수출이 92톤이었고, 1997년에 와서는 쇠고기가 4톤, 돼지고기가 511톤으로 쇠고기보다 돼지고기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1999년도에는 돼지고기가 1,800톤이었고, 2006년에 들어와서는 돼지고기 수출이 1,247톤으로 1993년 92톤에 비하여 놀라운 증가현상을 보인다(제주축산사, 2007).

1990년대 세계화로 인한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른 유통소매업의 성장과 수입산 고기와의 차별화를 위해 대량생산, 고품질의 현대화된 공장식 축산이 필요했고 한국 경제 발전에 따른 국민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기를 원

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2000년대부터 본격적인 축산물 브랜드화가 진행된다.

2000년대에는 대형소매유통업체들이 대표하는 소비자 욕구, 즉 축산물의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한 확인과 식별 요구에 부합해서 고급육의 브랜드화에 나서게 된다(송인주, 2013). 이후 본격적인 돈육 브랜드화가 시작되었고 2017년 기준 돼지고기 출하물량 중 브랜드 출하가 70.5%로 유통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 축산농가 구조 변화

세계화로 인한 유통시장 개방으로 인해 수입·수출이 보다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농업·축산업은 가격, 품질 등의 경쟁력을 갖춰야 했다. 농업의 세계화는 전 세계적 규모의 농업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농업의 전문화와 규모화를 요구한다(유찬희 외, 2019).

세계화와 더불어 유통의 변화는 농가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형 유통업체는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농가와 거래하거나 직접 농장경영에 나서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산지의 특화, 생산의 조직화와 경영의 집중 등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박민선, 2008).

축산업은 1980년대 사료산업 및 종축업의 급속한 성장이 주로 도시 또는 도시근교의 전업형 농장에 집중되었다면 같은 시기 농촌지역에서는 전통적 부업축산이 여전히 지배적이었다. 1980년대 중후반 돼지와 소에서 일어난 일련의 가격파동은 농촌의 다수를 이루는 부업축산농을 청산한다. 그 결과 1980년대 후반이 되면 기업축산도 부업축산도 아닌, 전업가족농이 주도하는 본격적 ‘산업화’의 경로가 개방된다(송인주, 2013). 현재까지도 축산농가의 경영형태는 가족경영이 94.7%로(최현호 외, 2017)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농장주의 대부분은 승계의 방법으로 2세대 경영을 원하고 거부할 경우 농장 승계를 포기하거나 처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 농업·축산업 승계 관련 대부분의 논문은 승계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대부분 양적 조사의 방법을 택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가족승계의 이유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농장주 인터뷰를 실행하고 연구하였다.

1990년대에는 산업적 축산이 본격화되면서 사료나 투입제를 공급하는 기업이

나, 가축을 구매하는 기업은 자신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규모나 형태로 가축을 사육하도록 권고하거나 요구하고 그 결과 사육활동의 조직적 단위가 농가 또는 농장은 점차 전업화·기업화된다(송인주, 2013). 유통시장의 변화와 축산의 산업화, 유통소매업의 축산물 품질관리 등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구조변화가 일어났다. 1천 마리 이상의 전업 양돈농가는 1990년 0.3%에서 2020년 55.6%로 현재 양돈의 전업화가 되었다고 보여진다(통계청, 가축동향조사 재구성). 축산농가의 전업화·기업화로 인해 농장주는 농민과 경영주의 모호한 경계에 위치해 있고 현장연구를 통해 이 변화에 대해 좀 더 입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3) 후계농

농업과 축산업의 근간을 이루었던 가족중심의 농가 운영은 한국의 산업화와 이촌현상,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한다.

과거에는 대다수 농가에서 가족 구성원이 생산 수단과 노동력을 소유·통제하고 의사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 전체 경제가 발전하면서 농가와 농가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농가 인구가 농가 수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 원인은 1970~1980년대 농가 구성원 중 일부를 도시 지역으로 보내서 소득을 얻게끔 하는 부분 이촌향도 현상과 주로 1990년대부터 심화된 고령화 때문이었다. 이 결과 1970~2018년 농가 수와 농가 인구는 각각 연평균 1.8%, 3.7%씩 줄어들었다(유찬희 외, 2019). 고령화와 더불어 가족중심 운영으로 농촌 및 축산농가에는 승계문제가 대두된다. 2014년 축산 부문의 고령화율(65세 이상)은 45.0%이며, 축종별로는 산란계 52.0%, 육계 50.2%, 한우 45.7%, 오리 36.6%, 양돈 27.0%, 육우 25.3%, 낙농 17.2% 순이다(박인희 외, 2016). 최현호 외(2017)는 축산농가의 심각한 고령화 상황에서 영농승계가 어려울 경우, 농가수는 계속 감소해 축산업의 기반유지를 위협하게 될 것으로 보고 향후 10년 이내에 세대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박인희 외(2016)는 축산업에서 역량 있는 주체가 필요하며 젊은 축산 후계농 육성이 우리나라 축산업에 있어 근본적인 과제라고 언급한다. 축산업은 축사 부지, 축사설립, 현대화 기계 구입, 가축 등 초기 진입자금이 많이 소요된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체계 확립과 교육받는 기간 동안 경제적 문제 해결 등을 내놓지만 이는 창업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축산업에서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야 하는 청년창업농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해결 방안이 지나지 않는다. 전업화된 축산업의 경우에는 청년 창업의 진입 장벽은 높기 때문에 농장 승계로의 집중이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세대교체 현상은 양돈농가에서도 나타난다. 대한한돈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한돈’을 살펴보면 2010년대부터 승계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가족농장 승계, 세금과 관련된 승계 비용, 후계농 육성의 필요성, 후계농 교육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점차 논의를 생산하고 있다. 승계비용 발생 등 1차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현재 후계농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현호 외(2017)의 논문과 ‘월간한돈’을 통해 현재 축산업, 양돈농가에서 승계 문제가 대두되고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양돈업 승계자 확보 유무 등의 조사는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돈협회는 ‘양돈경영실태조사’를 통해 양돈농가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에 대해 조사한다. 연구자가 파악한 한돈협회의 조사는 2010년, 2014년 2회의 조사가 실행되었고, 이후 김다영(2020)이 이전 조사와 달리 세부적인 문항으로 승계여부를 조사하였다. 양돈업 승계자 확보 유무 조사 수치를 살펴보면 승계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가 많지만 타영농에 비해서는 그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승계 관련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주지역의 양돈농가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후계농 연구와 관련하여 승계 여부 등의 양적 조사도 시급하지만,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재 제주 양돈산업이 갖고 있는 악취, 집중화,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 등에 대한 후계농의 대처와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세대 농장주와 후계농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와 생각에 대해 알아보고자 면접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4)이주노동자

농촌의 고령화 및 농촌취업 기피로 농축산업 분야의 인력난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이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2002년 7월, 농림부는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2003년 1월 27일, ‘외국인 농업 연수생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이 농림부 고시로 발표된 후, 같은 해 7월 처음으로 농업연수생이 입국하였다(이병렬 외, 2013). 이후 E-9비자를 통해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의 기피직종인 축산업에서 주요한 인력을 제공한다.

이병렬 외(2013)의 연구를 통해 농업과 공장식 축산업의 차이점을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일반작물에서는 컨테이너나 패널집이 81.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별도의 집이나 건물에 마련된 숙소는 8.7%로 적은 반면, 축산에서는 별도의 집이나 건물에 마련된 숙소가 66.7%로 타영농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이는 일반작물재배업에 비해 축산업이나 버섯 등 공장식 작물재배업에서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비교적 많은 기업형 경영을 하면서 기숙사형태의 숙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가 방문했던 농가는 위에서 언급한 기업형 경영 형태의 대규모 농가는 아니었지만, 별도로 숙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공장식 축사를 설치하고 개보수하면서 별도의 숙소를 신축 또는 보수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 활동의 참여가 활발할수록 우울증상이 낮다는 것이다. 여타 이주노동자 공동체 대부분이 그러한 역할을 하듯이, 이주노동자들은 낯선 한국사회에서 자신과 동일한 언어와 문화적 풍습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끼리 모인 공동체에 의지함으로써 소외감과 불안감을 이겨낸다(정수남 외, 2019). 연구자가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정수남 외(2019)는 면접조사를 통해 이주노동자, 농장주의 일상을 깊게 살펴보고 합리적인 고용제도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그들의 건강상태를 알아봄으로써 건강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그들의 일상을 살펴보고 육체 및 심리 건강 악화의 요인 중 하나인 제도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점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는 농장주와 이주노동자 쌍방의 문제가 아닌 여러 주체들을 통해 문제를 재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한다.

제주연구원이 수행한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경제·사회분야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2019)」은 외국인노동자 중 권역별, 국가별 표본구성을 반영해 총 550명의 표본을 추출하고, 이들에 대한 1대1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서 조사하거나 일과 후 시간을 조율해 면접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2개월에 걸쳐 진행됐고 그들의 업무환경과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는 제주도 차원에서 도내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최근의 이주노동자 인권, 생활환경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형식적인 설문지 조사 방법이 아닌 직접대면 조사를 함으로써 조금 더 실상에 다가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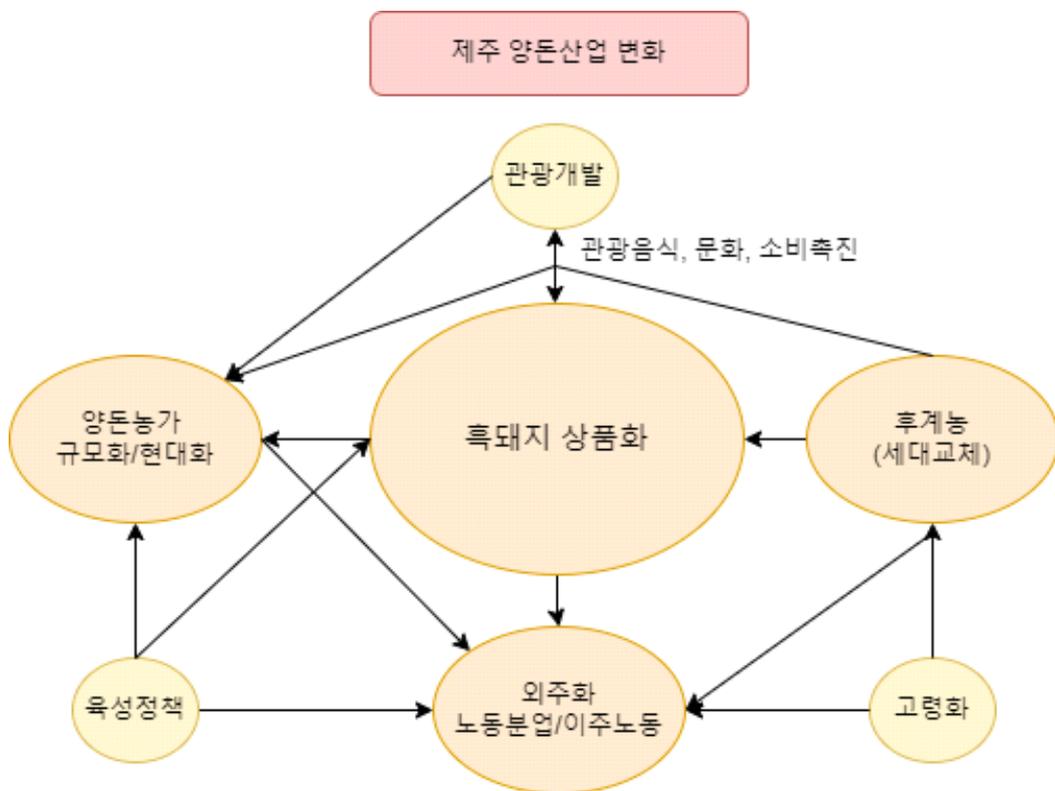
양돈산업은 공장식 축산, 전업화 등으로 인해 농업과 공업 사이에 위치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이주노동자 고용과 활동에서 타지역과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주 양돈산업으로 특정 지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양돈산업 이주노동에 관한 질적 연구를 통해 기존 이주노동자 연구들과는 다른 양상을 살펴보았다.

4. 연구 목적

본 논문에서는 제주 흑돼지의 상품화를 만들어 내는 양돈산업, 관광, 정책, 후계농, 이주노동자 등 여러 주체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만들어 내는 변화와 흐름에 대해 살펴본다.

2000년대 이후 제주 흑돼지가 음식물로 소비되는 고기뿐만 아닌 관광과 연계된 음식, 문화상품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양돈산업, 정책, 관광 등의 주체들이 연계되어 있고 후계자 및 이주노동자 등의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면서 양돈 생산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그림 2> 연구 개요도



제주 양돈산업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 2000년대 이후 제주 흑돼지가 제주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 변화의 양상은 무엇인가를 추적한다.

2) 흑돼지를 포함하여 제주에서 돼지를 생산하는 양돈농가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 변화를 세대교체에 따른 양돈장 승계와 매매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3) 흑돼지를 생산하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무엇인지를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돈육의 수출입을 포함하는 글로벌한 맥락에서 분석한다.

II. 제주 흑돼지 상품화 과정과 요인들

관광에서 식도락은 관광객의 만족도와 연관된 중요한 요소이다.⁴⁾ 제주 관광음식에서 흑돼지 구이 및 음식은 자주 등장한다.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양인하, 정순여(2020)의 연구를 살펴보면, 제주음식에서 제주돼지의 영향력을 알아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2018년 상위 100단어 빈도수와 연결정도 중심성을 살펴보면 흑돼지의 경우에는 상위 6번째를 차지하고, 돼지와 관련된 단어로 '흑돼지, 고기국수, 몸국, 고기, 돼지고기, 돼지' 등이 등장한다.⁵⁾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 또한 제주의 대표음식으로 흑돼지를 꼽는다.⁶⁾

1970년대 이후 제주 관광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관광지에 대형음식점이 생겨났고 근대의 향유로서 외식문화가 제주지역에도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외식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가족과 회사단위의 외식으로 갈비나 삼겹살 구이가 인기를 끌었다. 1970년대 후반 굽는 문화가 보편화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까지 돼지고기 구이는 전성기를 맞이한다.⁷⁾ 2000년 이전 관광음식점에서 주로 판매했던 돼지구이는 흑돼지가 아닌 백돼지였다.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흑돼지고기 음식점 특화지구인 '흑돼지 거리'는 2010년에 생겨났다.

2000년대 이후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지정, 특별자치도 출범 등을 계기로 관광객 유입이 본격적으로 늘어난다. 제주 대표 관광음식으로 흑돼지를 육성하기 위해 제주의 지역적 특색과 돛통시 등 재래돼지 문화를 바탕으로 흑돼지의 상품화를 제주도정 차원에서 지원하고 제주 흑돼지는 맛있는 고품질 돈육의 이미지를 구축한다.

이처럼 제주 흑돼지가 2000년 이후 제주 대표 음식, 문화관광자원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상품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제주여행 중 주요 만족도가 높은 참여활동은 '자연/명승경관 감상'(45.9%)이 가장 응답비율이 높았고, 다음으로는 '식도락(맛집여행)(18.2%)', '산/오름/올레킹(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2017).

5) 분석 결과, 빈도와 연결정도 중심성으로 영향력이 큰 중심단어는 '맛집, 맛, 여행, 향토음식, 흑돼지, 추천, 갈치조림, 좋은 음식, 메뉴, 고기국수' 등으로 나타났다. 주로 제주여행 중 향토음식 맛집 추천 메뉴가 '흑돼지, 갈치조림, 고기국수'를 중심으로 제주 맛집, 음식점이 많이 검색되었음을 알 수 있다(양인하, 정순여, 「제주 음식관광 관련 의미연결망 분석」 2020, p.92).

6) 「2020 제주도 사회지표」에서 제주 대표 음식은 흑돼지(20.2%)와 갈치(10.9%) 등이 선정되었다.

7) 강수경(2011) 「제주지역 돼지고기 음식문화의 전통과 변화」, p.61.

1. 제주 돈육 브랜드 활성화 정책의 역사

제주도의 돈육 브랜드 활성화 정책을 알아보기에 앞서, 국내에서 돈육 브랜드가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유통시장의 개방이 있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타결로 국내 축산물시장은 연차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해 1996년 7월부터는 모든 유제품시장이 개방되었고, 1997년 7월부터 냉동 돼지고기와 냉동 닭고기 등의 수입이 자유화되었으며 2001년 쇠고기와 생우 등 모든 축산물수입이 자유화되었다.⁸⁾ 소비자는 더욱 다양한 축산물을 접할 수 있었고, 국내 축산물은 자체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국내산 돼지고기 또한 수입산 돼지고기로부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생산체계 구축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은 돈육 브랜드 형성 기반에 초석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1990년을 전후하여 축산업의 장기 발전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선진국형 권역별 축산물종합처리장의 건립이 추진되어 축협중앙회의 김제종합육가공공장을 필두로 한남 중부공장, 안성LPC, 군위LPC 등이 건립되었다.⁹⁾

1980년대까지 국내산 돈육은 냉동육 중심으로 판매되었으나, 1990년대 초부터 등장한 대규모 계열화 사업주체들이 계열물량의 판매확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돈육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돈육의 브랜드화가 시작되었다.¹⁰⁾ 초기 돈육 브랜드는 대성농장의 하이포크와 도드람유통의 도드람 포크, 그리고 선진의 크린 포크는 1992년 말과 1993년도에 출시된 우리나라의 브랜드 돈육 1세대이고, 농협의 프로포크와 롯데햄 롯데우유의 후레쉬포크는 정부의 축산물 유통 현대화 사업으로 건설된 LPC에서 생산된 2세대의 브랜드 돈육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¹¹⁾

콩나물 한 봉지, 돼지고기 한 근을 사는데도 '이름값'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이름의 대형 식품업체들이 채소와 고기, 계란,

8) 강태숙 외(2007) 『제주축산사』, p.515.

9) 「농장에서 식탁까지(통권 37호) 2020년 10월호」

10) 윤두진 외(2011) 「돈육 브랜드 속성에 관한 연구」,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8권 제3호, p.432.

11) 김태경(2003) 「브랜드 돈육의 브랜드-아이덴티티 확립에 관한 연구」, p.49.

곡류 등 1차 농·축산물 시장으로 속속 뛰어들면서 농·축산물에도 '브랜드'시대가 열리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선 현재까지 거의 유일하게 브랜드화가 이뤄지지 않은 거대 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문제 발생시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기 때문.

브랜드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품목은 돼지고기. 이들 브랜드 돈육은 킬로그램 1만~1만1,000 수준으로 냉동육보다 50%가량 비싼 가격이지만 소비자들의 입맛 고급화와 함께 날로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출처: 서울경제. 2003.12.10.]

위의 기사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 농축산물의 브랜드화 초기에 돈육브랜드는 냉장육을 필두로 고급화에 나섰고 이후 양적·질적 성장을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는 1991년부터 브랜드 경영체 운영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브랜드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통해 국내산 축산물시장을 차별화하고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전문 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을 통해 양돈농가는 고품질의 축산물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후 2000년부터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한다.¹²⁾ 그리고 본격적으로 2004년부터 축산물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2004년 농림부에서 발간한 '축산물 브랜드 육성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당시 2003년 6월을 기준으로 축산물 브랜드 수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브랜드관리 미흡, 생산규모의 영세로 인한 물량 공급의 어려움에 따른 대형유통업체 등 판매망 확보 애로, 위생관리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후 국가주도 차원에서의 브랜드화 정책을 실행한다.

농림부는 당시 우수 축산물 브랜드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품질의 균일성, 위

12) 정부에서 주최하는 경진대회와 별개로 (사)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에게 품질, 위생, 안전 등을 모두 갖춘 우수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2004년부터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우수축산물 인증브랜드는 신청자격에서부터 업선된 브랜드를 위주로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인증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3차례의 현지 실사를 실시한 후에 일정 점수 이상의 브랜드를 선정한다(소비자시민모임 홈페이지)고 밝히고 있다.

생·안전성 제고, 규모화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1) 규모화된 브랜드 경영체 조직 지도, 2) 생산·유통 지원사업 지원, 3) 브랜드 컨설팅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농림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하는 축산물 브랜드 2 단계 발전대책을 수립한다. 추진목표로 1)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는 고품격 브랜드로 정착, 2) 브랜드경영체 사육비중을 2017년까지 소 60%, 돼지 50% 이상 달성, 3) 규모화·차별화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내세웠다. 소규모 브랜드를 통합하여 명품브랜드를 생산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규모화·광역화, 브랜드경영체 선정방식 및 지원기준 강화, 우수 브랜드를 고품격 브랜드로 발전, 브랜드별 가축개량 및 고품질 생산 기반 구축, 깨끗한 농장환경 조성, 위생안전성 제고, 브랜드 축산물 유통 차별화 : 브랜드육 타운 조성, 직영 유통시설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본, 2차에 걸쳐 진행된 정부의 브랜드 활성화 정책은 규모화를 통한 위생과 안전성 제고라는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정책에서는 돈육 품질에도 중점을 맞췄지만, 사육시설과 기술 등이 발달하고 대형사료 회사 등이 생겨남에 따라 돈육 품질의 향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단계 발전 정책에서는 점차 비중이 높아지는 수입육 대비 전략을 구축한다. 이로써 브랜드 경영체 비중을 높이고 브랜드의 질을 높이는 전략을 구상하고 브랜드육 타운 조성 등의 집약화로 경제성을 추구한다.

국내 돈육 브랜드화 흐름과 더불어 소비자들로부터 제주 흑돼지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제주도 차원에서 ‘제주 흑돼지’의 돈육 브랜드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돈육 브랜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1990년대 후반 사회기사를 살펴보면, 흑돼지 사육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관광식당과 접목해 도민뿐만이 아닌 관광객을 대상으로 흑돼지를 홍보하고 판매하려는 제주도의 움직임은 읽을 수 있다.

濟州도 南濟州군은 26일 올해부터 내년까지 흑돼지 사육농가에 모두 6억원을 지원, 특산단지 3곳을 조성하고 각각 관광식당까지 갖추기로 했다.

남제주군은 우선 올해 表善면 城邑리 4곳의 흑돼지 사육농가에 2억원을 지원, 축

사 등 사육시설을 보완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광식당을 건립토록 할 계획이다.

제주의 재래식 화장실 청소부로 유명했던 흑돼지는 지난 69년까지만 해도 도내 4만3천여 농가에서 1-2마리씩 보유, 사육두수가 최고 6만2천마리나 됐으나 새마을사업으로 화장실이 현대식으로 개량되면서 급격히 줄어들었다.(중략)

이같이 방사해서 키우는 흑돼지는 90kg짜리 한 마리 가격이 31만원으로 좁은 우리에서 살만 찌우는 일반 돼지의 16만6천원에 비해 거의 두배나 비싼데도 지방층이 얇고 맛이 담백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인기를 끌면서 백화점에 직거래로 납품되는 고급 품종으로 자리잡았다.[출처: 연합뉴스, 1997.03.26.]

이후 제주도는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한 제주산 돼지고기의 생산·공급을 하기 위하여 제주형 HACCP-FCG 브랜드를 시행하고 양돈농가 26개소에 대해 도지사가 품질보증¹³⁾을 하였다.¹⁴⁾

강태숙 외(2007, 제주축산사)는 2000년대 세계화로 시장이 넓어지면서 제주지역의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푸른 초원을 상징하는 제주형 HACCP-FCG 육성은 제주청정성을 널리 알림을 물론 타지역 축산물과 완전한 차별을 일으킨 축산혁명이라고 평가하고 이후 국내의 생산이력제, 지리적 표시제 등 다양한 차별화 시책 추진의 기폭제가 된 것이 제주형 HACCP-FCG 브랜드라고 언급한다.¹⁵⁾

제주도는 4일 수입개방화에 대비, 고품질, 위생축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기준을 통과한 돼지고기에 대해 도지사의 품질보증 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FCG마크’로 불리는 도지사의 인증마크는 맑은 공기(Fresh Air), 깨끗한 물(Clean Water), 푸른 초원(Green Fields)을 의미한다.

이 마크를 따려면 해충·냄새구제, 품질관리 여건, 생산가공시설 및 기술수준, 출하규격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받은 뒤 학계와 농업시험장·축산진흥원 전문가, 양축농가·육가공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제주산 축산물 안전생산관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출처: 중앙일보. 2000. 1. 5.]

13) 현재는 JQ(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로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해 제주 제품의 판매확대 및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출처: JQ 홈페이지, <https://jq.or.kr/front/jpinfo/certificationmark/html.do>)

14) 제주도 축정과

15) 강태숙 외(2007) 앞의 책, p.515.

제주도는 2015년 제주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신청 업소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로부터 고기를 공급받아야 하며, 도·행정시 및 돼지고기 공급업체에서 정기 점검 등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 2022년 3월까지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제주시 193곳, 서귀포시 67곳 등 제주지역 260곳과 제주도의 41곳, 해외 3곳 등 총 304곳이 인증점으로 관리되고 있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도에서 발급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를 업소에 게시·부착할 수 있다. 제주도 차원에서의 인증을 시행함으로써 제주산 돼지고기 유통을 보호하고 차별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위에서 나온 제주도의 돈육브랜드 정책을 살펴보면 제주도 자체적으로 돈육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생산, 가공 등의 시설을 점검하는 등 위생과 품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도 초반 육지부에서 제주산이라고 둔갑시켜 유통하는 경우가 생겨, 제주도정은 제주산 돈육 판매장을 운영하고 2006년에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한다. 제주돼지 판매인증점을 통하여 지리적 표시제와 마찬가지로 도 차원에서 ‘제주’ 자체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제주산 돼지고기를 보호·관리한다.

제주 공동·인증 브랜드 보조 인지도¹⁶⁾를 살펴보면 도내외로 알려진 제주돼지 브랜드의 경우에도 제주도 또는 양돈농협 등에서 투자하고 생산한 브랜드이다.

<표 3> 제주 공동·인증브랜드 보조 인지도

순위	도민			도외민		
	브랜드명	빈도(명)	비율(%)	브랜드명	빈도(명)	비율(%)
1위	제주옥돔	145	56.4	제주마쌈	101	91.8
2위	제주흑다돈	136	52.9	해올렛	59	53.6
3위	제주도니	66	25.7	보들곶제주한우	55	50.0
4위	글림元	59	23.0	제주옥돔	45	40.9
5위	제주마쌈	55	21.4	불로초	35	31.8
6위	불로초	48	18.7	제주흑다돈	35	31.8
7위	햇살바람	41	16.0	제주도니	34	30.9
8위	제주본초	37	14.4	글림元	24	21.8

16) 보조 인지도란 소비자에게 한 제품범주 내에 있는 여러 브랜드를 제시하고 각 브랜드를 과거에 듣거나 본 적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9위	해올렛	28	10.9	제주본초	13	11.8
10위	보들곶제주한우	21	8.2	제이어스	12	10.9

(출처: 한국은행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인증브랜드 마케팅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¹⁷⁾」 2017)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흑다돈’과 ‘제주도니’는 기업의 개별 브랜드가 아니다. 흑다돈의 경우 2009년 제주흑돼지 명품화 사업¹⁸⁾의 하나로 브랜드네임 선정 협의 등을 통해 “제주흑다돈”으로 명칭을 선정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투자한 흑돼지 통합 브랜드이다. 제주양돈농협의 프리미엄 돼지고기 브랜드 제주도니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브랜드 계약 23개 농가, 수출계약 50개 농가, 종돈 공급 87개 농가 등 제주 도내 100여 개 농가를 통합 관리한다.

2. 관광·문화상품에서 음식으로 : 흑돼지의 변화

제주의 개발 정책에서 관광과 축산업은 함께 다뤄지고 성장했다. 이상철(1987)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제주 개발 주요 내용은 ‘국제자유지역’, ‘관광개발’, ‘산업개발’의 세 가지로 이루어졌으며, 관광개발계획은 제주개발을 주도하고 산업개발계획은 관광개발을 위한 보조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관광개발을 필두로 1960년대에는 1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개발계획이 시행되었다. 그래서 지역특화산업인 감귤농업과 축산업을 신장시키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묘목을 수입하고 가축의 품질과 초지 개량에도 힘썼다. 그러나 초기의 개발은 어디까지나 제주도를 국제적 관광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다.¹⁹⁾ 1960년대 이시돌협회를 중심으로 시작한 초창기 양돈산업은 제주의 관광산업 발달을 위한 보조산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보조산업의 개념으로 시작했던 제주의 양돈산업은 현재 제주 관광업의 성장과 함께 경제적 규모가 커지고²⁰⁾ 종돈 사업, 동물 약품 산업, 유통 및 가공, 사료와 전기설비 등 주변

17) 사전조사를 통해 선정된 브랜드에 대해 서울/경기/제주 및 6대 광역시, 연령대: 20세 이상 ~ 60세 미만, 총 샘플 수: 367명(제주 거주자 30% 포함, 기타 지역 거주지별 인구통계 할당)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의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여 제주 공동·인증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조사

18) 제주도는 제주흑돼지를 글로벌브랜드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3년간 농식품부의 지원으로 흑돼지 가공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11개 사업·30억원을 투자하였다

19) 이상철(1987)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p.41.

산업에 끼치는 영향력이 증가한다.

제주의 관광산업과 양돈산업은 제주경제에서 외화 획득을 위한 주요 수단이었다. 양돈산업의 경우 1993년 대일수출을 시작으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다.

2000년도 이후 제주는 관광, 투자, 교육, 환경 등 주요 분야에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표명하였다. 특히 제주도는 2000년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2000년도 제주도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과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등으로 내외국 관광객 유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2010년 1,000만 명을 돌파했고, 2016년 1,585만 명, 2019년 1,528만 명, 코로나 이후 2021년 1,200만 명이 제주를 방문한다.

2000년 이후 국내외 관광객 증가는 제주 흑돼지 상품화에 큰 기반이 된다. 관광객의 증가로 도내에서 소비하는 돼지고기의 양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 흑돼지 맛 등 품질에 대한 구전 홍보 효과 등이 발생하였다.

직접적인 제주 내 흑돈 소비의 증가와 더불어 ‘제주흑돼지’ 자체가 문화관광 자원의 하나로 콘텐츠화되었다. 제주흑돼지는 관광산업 초기에 ‘똥돼지’라고 불리며 육지와 이질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문화 콘텐츠가 되었고 제주도의 돈육 브랜드화를 통한 산업화 과정에서 제주의 대표 관광문화·음식 상품이 되었다.

민속촌 등을 방문하면 돛통시를 옛 제주의 생활문화라고 말하며, 이는 흑돼지의 문화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당시 집에서 키우던 돼지의 대부분은 흑돼지였기 때문에 제주돼지는 자연스레 흑돼지라는 이미지로 이어져 간다. 하지만 이는 제주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문화는 아니다. 석주명에 의하면 인분을 돼지의 먹이로 하는 방식은 한반도에서는 북으로부터 회령, 양구, 통영, 거창, 합천, 광양의 여러 지방, 내몽 서부, 산동성 전부, 산서성동 중부, 만주 용정, 류큐 전부, 비올빈(필리핀) 전역에서도 나타났다.²¹⁾

돛통시뿐만 아니라 제주 내의 관광축제 음식부스에서는 흑돼지를 이용한 음식을 통해 제주 향토 음식 문화 중 하나로 흑돼지를 알리고 있다. 제주 돼지를 메

20) 양돈산업 조수입은 1996년 813억 원에서 2010년 이후 3천억에서 4천억을 오가는 규모로 성장했다. 이는 전체 축산 조수입 평균 9천억 원의 45%에 달한다.

21) 석주명(2008), 『제주도수필』, 서귀포 문화원, p.160.

인주제로 하는 ‘제주 도새기 축제’²²⁾도 있다.

그리고 제주도내 여러 관광지 및 지자체 행사 등에서 흑돼지를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구성하며 흑돼지 달리기 등의 행사를 진행하는 등 흑돼지는 제주의 주요한 문화상품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3> 제주 흑돼지 체험 프로그램 홍보



(출처: 휴애리 자연생활 공원 홈페이지. <http://www.hueree.com/>)

관광음식차원으로의 제주 흑돼지 선호도를 살펴볼 수 있는 ‘2019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16.6%는 흑돼지 구이/요리를 먹는다고 한다. 다른 음식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이 흑돼지에 대한 관광객의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래돼지를 키우는 농가수는 전체 양돈농가의 약 30%, 두수는 20%를 차지한다. 그 이유는 흑돼지의 생산성에 있다. 우선 일반돼지에 비해 사육기간이 2배 이상 소요된다. 흑돼지는 약 330일, 일반돼지는 160일 정도이다. 또한 출하체중이 60kg 정도로 낮다. 일반돼지에 비해 생산성 면에서 낮을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2) 제주 도새기 축제는 제주양돈농협, 제주양돈산업진흥의 청정 제주돼지의 세계적 브랜드화 및 청정브랜드 이미지 정착과 제주산 돼지고기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하기 시작하여 2009년 이후 격년으로 개최되었고, 2011년은 전국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보류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격년으로 개최된다. 시식회, 돛통시 재현, 제주도니 홍보를 위한 제주도니 3형제 인형극, 제주도니 사생대회, 플리마켓, 캐릭터 티셔츠 만들기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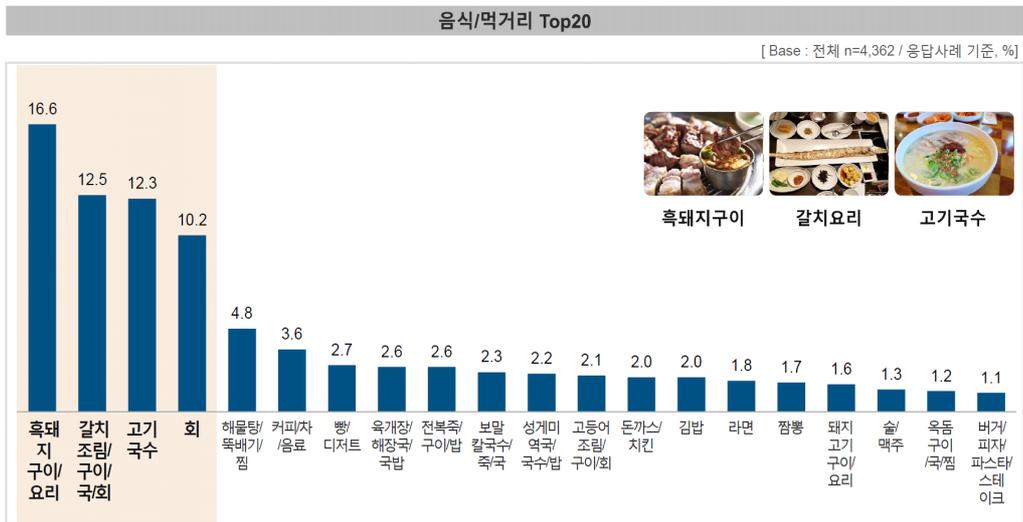
(제주양돈농협 홈페이지, <https://jpp.nonghyup.com:8100/user/indexSub.do?codyMenuSeq=27577557&siteId=jpp>)

2013년에는 서양 돼지와 교배를 통해 제주 재래 흑돼지의 사육기간, 체중 등을 보완한 ‘난축맛돈’²³⁾이 제주흑돼지생산자회에 보급된다.

<그림 4> 2019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1) 관광객은 제주도에서 무엇을 먹고 있는가?

- 내국인 관광객의 52%가 ‘흑돼지 구이’, ‘갈치 요리’, ‘고기국수’, ‘회’를 제주에서 먹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19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에서는 여전히 일반 돼지와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가격 면에서 흑돼지가 일반돼지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생산성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연구자는 흑돼지만을 키우는 흑돼지 농가 경영주를 인터뷰하면서 코로나 이후 경기가 좋지 않아 흑돼지의 판매가 저조할 것이라 예상하여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경영주는 코로나 초기에는 상황이 조금은 힘들었지만 관광객의 제주 방문이 증가한 이후 흑돼지 가격 상황이 좋아졌다고 대답하였다.

23) ‘난지축산연구소에서 만든 맛있는 돼지’라는 뜻의 ‘난축맛돈’은 제주도의 재래종 돼지와 생산성이 높은 랜드레이스종과의 교배를 통해서 개발해냈다. ‘난축맛돈’은 일반 돼지에 비해 근내지방량이 우수하다. 일반 돼지에서 가장 근내지방이 없는 부위 중 하나인 등심은 2~2.5%의 근내지방을 갖고 있지만, ‘난축맛돈’은 평균 10.5%에 달한다. 일반 돼지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런 만큼 구워 먹는 데도 적합하고 소비자의 기호도도 높은 편이다(농촌진흥청 「고 육질형 흑돼지 '난축맛돈' 개발」 2013).

농장주 : 우리는 전부 흑돈이에요 1,800두.

근데 흑돈이 규모가 안 크더라도 꽤 있더라구요. 수입이 있으니까.

연구자 : 요즘 흑돈은 잘 팔리죠?

농장주 : 없어서 못팔지. 육가공공장에서 농장에서 바로 팔리니까.

실제 제주 흑돼지는 일반 백돼지보다 20~30% 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국내외 제주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경락가격의 차이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 품종별 등급판정 정보 및 경락가격

연도	품종	도체중량(kg)	경락단가(원)	흑돼지-백돼지 가격차(원/kg)
2013	제주백돼지	82.6	4,259	842
	제주흑돼지	77.1	5,101	
2014	제주백돼지	83.8	5,231	996
	제주흑돼지	76.9	6,227	
2015	제주백돼지	84.7	5,831	1,729
	제주흑돼지	76.7	7,561	
2016	제주백돼지	84.9	5,173	2,300
	제주흑돼지	77.7	7,473	

(출처: 농업경영 정책연구 제44권 제3호, p.560)

3. 유통정책을 통한 제주 돼지 만들기

제주 돈육이 청정 이미지를 지키며 고급 상품화가 될 수 있던 배경에는 제주만의 돈육 유통정책이 있다.

가격·품질경쟁으로의 유통구조 변화 속에서 제주도는 2000년 이후 시행된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 금지 정책’을 통해 구제역으로부터 청정 이미지 구축과 제주도내 돈육 유통 안정화를 꾀하고 제주 돼지고기 고급 상품화를 할 수 있었다.

2020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도민 역차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다. 제주에서는 흠쇼핑으로 제주산 돼지고기를 구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제주산 돼지고기라고 해도 다른 지역에 반출이 됐을 경우 다시 제주로 반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만의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 금지 정책의 영향 때문이다.

제주의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 금지 정책은 대일수출과 질병 유입 방지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어왔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돼지질병 관리에 유리했다. 이는 돼지고기의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 대일 수출 물량의 경우 1997년 92톤을 시작으로 1999년에는 1,800톤에 달한다. 1999년에는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으로 선포되었고, 2001년에는 구제역 청정지역으로서 OIE(국제수역사무국)의 승인을 취득하였다. 하지만 2010년 전국 구제역 발생에 따라 제주 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하면서 일본 수출이 중단됐다.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 조건 중 하나가 ‘비백신’이었기 때문이다.

<표 5> 제주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 금지 정책 변화

시행일자	정책	비고
2002. 04. 18	타지역 돼지 및 부산물 반입 전면금지	99년 12월 돼지전염병 청정화 선언 이후 돼지관련 질병이 발생 없음. 타지역 돼지 질병 차단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한 긴급 조치
2017. 10. 10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 조건부 해제	조건부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허용.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돼지고기는 도축된 고기와 그 부산물. 살아있는 돼지(생축)는 금지
2018. 03. 28	타지역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생산의 반입 전면 금지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가축전염병 구제역 발생
2018. 05. 01	타지역 소·돼지 고기 반입금지 해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주의’로 조정하고 이동제한 해제
2019. 09. 17	타지역 돼지고기의 지육, 정육 및 내장에 대해 전면 반입금지	경기도 파주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제주지역 유입방지를 위해 긴급 대응 조치, 타지역 가열 처리한 축산물 가공품은 반입이 가능
2021. 07. 27	제한적 허용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
2021. 08. 09	타지역 돼지고기·생산물 전면 반입금지	강원 고성에서 ASF(아프리카 돼지열병)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
2021. 11. 26	제한적 허용 ²⁴⁾	충남(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남(부산) 지역

(출처: 연구자 작성)

24) 다른 시·도에서 ASF가 발생하면 돼지고기 반입을 즉각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시·도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

제주도는 2002년 4월 18일부터 2017년 10월 10일까지 15년 동안 돼지열병 유입 방지 등을 위해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였다. 2017년 반입 금지 해제 이유도 그동안 제주 도내 사회의 반입 금지 해제에 관한 여론이 있었고 일부 언론은 2017년 당시 일부 양돈농가들의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불법적 행위가 해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있다.

반입금지 해제 뒤 2018년 3월 28일에 김포에서 발생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또다시 반입을 전면금지한다. 이후 구제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2018년 5월 1일에 반입금지를 해제한다. 하지만 2019년 경기도 파주 양돈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축산물 가공품만 반입이 가능한 부분적인 반입금지가 시행된다. 2021년 7월 27일에 경남, 전남 등의 4개 지역 돼지고기 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후 2021년 8월 9일에 강원 고성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발생으로 전면 반입금지된다. 2021년 11월 26일 이후 4개 지역의 돼지고기를 2022년 5월 현재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입 허용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 희망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제주도의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금지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²⁵⁾을 근거로 시행되고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²⁶⁾로 명시된다.

제주도는 대일수출을 매개로 방역을 위한 돼지고기 유통을 특별자치법으로 보호·관리하고 있다. 이는 양돈산업 및 축산업이 제주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입금지와 관련하여 제주 양돈산업 내에서도 주체별로 의견은 양분된다.

25) 제284조(가축·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① 도지사는 청정환경 유지를 위하여 유해 동물·식물 또는 병해충의 예비관찰·예방 및 구제, 발생실태 조사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반입되는 수산물, 식물 및 가축과 그 생산물 등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역류, 반출·반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출·반입 금지대상, 방역을 받아야 할 대상·방법·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6) 제주특별자치도로의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반출·반입 가축, 그 생산물, 사료, 생물학적제제, 운송차량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조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가공업계와 외식업계의 경우에는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 허용을 요구한다. 육가공업계는 반입금지로 인해 도내 돼지고기 가격이 높기 때문에 타지역 대비 가격 경쟁력의 차이가 생기고 그로 인한 경영난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돼지 생산자에게만 향하는 지원과 관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다. 제주도 당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와 육가공업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타지방보다 값이 비싼 제주산 돼지가격을 놓고 도내 육가공유통업체들이 “생산자(농가)만 배불리고 소비자와 육가공유통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동맹휴업’에 돌입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마디로 산지 경락가격이 비싸도 너무 비싸 타지방에서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제주도민들도 상대적으로 비싼 돼지고기를 사먹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중략)

이번 동맹휴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총 25개 업체로, 1일 약 50두 이상의 돼지를 가공·유통하는 중대형 육가공유통업체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휴업에 참여한 육가공유통업체 관계자는 “육지부 돼지열병으로 지난 2002년부터 육지부 돼지고기가 제주지역에 전면 반입 금지된 이후 12년 넘게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이 왜곡되고 있다”며 “행·재정지원이나 관심이 온통 생산자에만 쏠리고 있고 육가공업체들은 육지부에서 가격경쟁력에 한참 밀리고 있다. 육가공유통업체와 비싼 돼지고기를 사먹는 제주도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출처 : 제주의소리, 2013.12.20.]

반면 외식업계는 한정적인 육류 공급으로 인한 물량의 부족함과 원재료 가격 상승의 문제를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제주 삼겹살 물가지수 추이를 보더라도 돼지고기(외식)의 경우 2010년 이후 가격 상승률이 35.6%로 전국 대비 9.1%가 높게 나온다.

<그림 5> 삼겹살(외식) 물가지수 추이



(출처: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 「관광물가지수 산출을 통한 제주지역 관광물가 현황 평가 및 시사점」)

제주지역의 음식점들이 23일 육류 공급이 달려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 반입을 허용해 달라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건의했다.

이 단체는 "다른 지역의 육류 반입을 금지한 이후 이전보다 원재료 가격이 30~40% 올라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불가피하게 음식값을 인상하게 돼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반입을 허용하면서 국내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반입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한 육류에 한해 반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주산 돼지고기의 다른 지역 출하량을 75% 수준에서 65~60% 수준으로 낮춰 돼지고기의 공급가격을 안정시켜 줄 것도 건의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1.02.23.]

이러한 유통구조와 관련하여 양돈장 농장주는 방역을 주된 이유로 내세우며 반입 허용에 반대의사를 표한다. 제주 도내 양돈농가를 대표하는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일부 유통업자 혹은 자영업자의 이익을 위해, 즉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모양새”라는 표현을 한다. 농장에서 생산한 돼지를 2차, 3차로 판매하고 소비하는 육가공업, 자영업 등과의 마찰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 양돈산업이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각기 주체들이 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통시장의 개방과 소매유통업체 변화 등으로 인해 가격·품질 경쟁이 가속화 되어가던 2000년 이후 제주는 구제역 등 돼지질병으로부터의 방역이라는 명목 하에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결과적으로는 양돈 생산자의 제주 도내 돼지고기 판로를 보호하였다. 역설적이게도 반입금지를 해제한 이후에 제주 도내 양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2017년 10월부터 2019년 8월 까지 제주에서 소비된 타지역 돼지고기 비중은 전체의 0.8% 수준에 그쳤다.

Ⅲ. 2000년대 이후 제주 양돈농가 구조 변화

앞장에서 본 2000년대 이후 흑돼지의 상품화 등으로 유통단계에서는 유통비용 절감, 도축·가공 등의 편의를 위해 일정한 품질의 돼지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양돈장의 필요성이 나타났고 이는 자연스럽게 2000년 이후 양돈농가의 전업화·규모화로 이어진다. 양돈업 또한 농업과 마찬가지로 전문화·규모화를 갖춘 농가 육성이 필요했고,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에서는 ‘전업농’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또한, 농장주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세대교체 등의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1997년 IMF 이후 제주 사회에서도 자본 투입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김진영(1998)은 경제위기 이후 해외자본, 육지자본을 경계하던 시각에서 비교적 호의적이고 개방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²⁷⁾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제주사회에서도 자본유입 등에 대한 시각이 바뀌면서 양돈업 또한 초기 시설비용 등 투자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양돈업의 전업화·규모화

영세농이 광범하게 존재하는 한국농업에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전업적인 농가경영을 육성하는 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 과제의 하나였다. 일찍이 「농업기본법」(1967)에서 “자립 가족농의 육성”을 천명하였으나 그 후 이를 뒷받침하는 시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80년대 후반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1981년부터 시작된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통해 영농에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된 농업인에 대한 후속적인 지원시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1989년에 발표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서 전업농 중심의 농어업인력 개발촉진계획이 수립되면서 전업농 육성사업이 구체화되었다. 이런 움직임은 이듬해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농수산업의 경영규모 적정화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27) 김진영(1998) 「IMF와 제주사회」 『제주리뷰』, pp.57-71.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경영능력과 영농의욕이 있는 농어를 전업농어가로 육성”(제3조) 규정으로 나타나며 전업농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²⁸⁾. 전업농은 “정상적인 능률을 가진 농업종사자가 완전 취업할 수 있고, 타산업 종사자와 균형된 소득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영농 규모를 갖는 농가”로 정의하고, 전업농 육성사업의 목적은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갈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된 가족경영체 확보를 위하여 타산업부문 종사가구와 소득균형을 이루며 일정 수준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가족 단위의 전업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후 정책의 시작단계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규모가 너무 적고 분야별로 선정되지 못하여 자금운영이 경직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1994년 6월에 발표된 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전업농 육성사업이 선정되어 2004년까지 10년간 전문적인 가족단위의 전업농 15만 호를 육성하는 계획이 마련되며 전업농에 대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축산분야인 양돈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업농의 기준은 상이하다. 농촌진흥청 보고서(2016)에서는 양돈 농가의 경우 1,000마리 미만의 농가를 소규모 농가로, 5,000마리 이상의 농가를 대규모 농가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소농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업농 기준을 1,500두, 기업농의 경영 규모 기준 4,000 두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통계청은 양돈업 전업농의 기준을 1천두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업농의 기준에 대한 통합된 정의가 있지 않고, 축산의 경우 대부분의 농가가 전업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는 정부에서 사용하는 전업농 기준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업농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 닭 3만수 이상, 오리 5천수 이상 사육농가를 전업농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기준은 농식품부가 10여 년 전 도시근로자와 소득수준을 비교해 설정한

28) 국가기록원. 「전업농 육성 배경」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4825&sitePage=1-2-1>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업농 기준은 종종 정부지원 차별화 잣대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구제역백신의 경우 전업농이라면 국비 35%, 지방비 15%, 자부담 50%다.

하지만 영세농은 자부담 없이 국비 70%, 지방비 30%다. 다른 예방백신 지원도 전업농과 영세농을 구별할 때가 많다. 소 전염성비기관염, 소 유행열, 소 아까바네병, 소 설사병 백신의 경우 영세농가는 지원대상이지만, 대규모 농가는 자율구입이다.(중략)

결국, 이들은 전업농에 포함됨에 따라 구제역백신 등에서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전업농이라는 표현 대신, 대규모 농가 등 다른 용어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축산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축산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전업농 수는 증가했다. 앞으로도 대형화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업농 기준을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출처: 축산신문. 2016. 05. 09.]

전업농의 등장과 함께 정부 정책은 1990년대 이후 경영 규모화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대규모 경영체를 육성하는 방향을 지향하였다. 이 시기 농업구조 정책 방향은 각 부분별 전업농을 선별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영세농이나 고령농이 겸업·탈농하게끔 유도하였다.²⁹⁾

축산분야의 시설현대화는 인력 부족과 농산물시장 개방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난 정책이었다. 농축산 품목별로 현대화 방식은 다르지만, 노동 집약적 생산 방식을 기술·자본 집약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정부 주도의 시설현대화 지원은 축산부분의 축사 시설 개선 및 가축 계열화와 원예 부문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소득 증대 사업, 경쟁력 강화, 주산단지 조성 등 정책과 함께 추진되었다.³⁰⁾

이러한 정부 정책과 지원으로 인해 양돈업은 소규모 농가 즉 영세농과의 간극이 심해지고, 영세농의 수는 대폭 감소하게 된다. 큰 규모의 농가일수록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와 현대화 시설을 갖추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갖추게 되며 체계

29) 유찬희 외(2019) 『농업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37.

30) 유찬희 외(2019) 앞의 책, p.41.

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영세농은 지속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해 갔다. 더욱이 정부차원의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액비 처리 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 소규모 농가일수록 처리비용 단가가 높아지고 자체시설 구축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생산성과 소득에서 격차가 발생한다.

2000년대 이후 양돈산업은 소비시장의 확대와 함께 기술·자본 집약적 생산 방식과 시설현대화 등에 의한 생산 현장의 전환으로 인해 양돈업 전업농가수와 사육두수에도 큰 변화가 나타난다.

통계청의 기준에 따라 양돈업 전업농의 기준을 1천두 이상으로 가정하여 2000년대 전후의 양돈 사육농가수와 사육두수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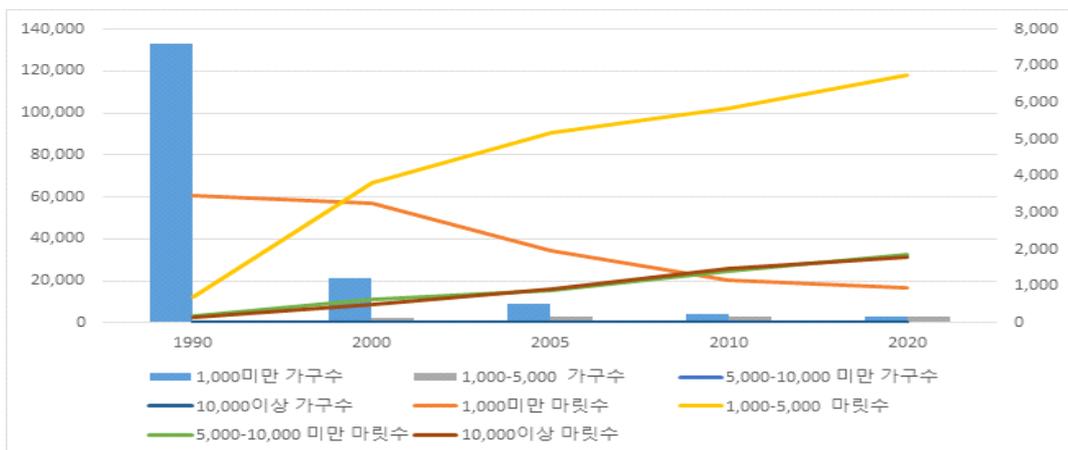
<표 6> 돼지 사육가구 및 마릿수

(단위: 천 마리, 가구)

구분	계		1,000미만		1,000-5,000미만		5,000-10,000미만		10,000이상	
	가구수	마릿수	가구수	마릿수	가구수	마릿수	가구수	마릿수	가구수	마릿수
1990	133,428	4,528	133,022	3,475	368	703	28	196	10	153
2000	23,841	8,214	21,501	3,271	2,211	3,820	94	629	35	494
2005	12,290	8,962	9,339	1,985	2,755	5,185	133	883	63	908
2010	7,347	9,881	4,099	1,150	2,943	5,843	216	1,413	89	1,473
2020	6,181	11,365	2,743	964	3,051	6,736	278	1,868	109	1,798

(출처: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재구성)

<그림 6> 돼지 사육가구 및 마릿수 그래프화



위의 표와 해당 그래프를 보면 1990년 133,428가구에 해당하던 소규모 및 전업 농 가구는 2000년에는 이전의 18%에 해당하는 23,841가구로 전체 농가수가 대폭 축소되었다. 반면 1990년에 1천 마리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는 전업농 가구수는 0.3%에 그쳤으나 2000년도 이후 9.8% 상승하였고, 2020년에는 전체 농가의 55.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보아도 90년대에는 전업농가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전체 마릿수의 23.2%이고, 1천 마리 미만의 소규모농가에서 사육되는 돼지가 전체의 76.7%를 차지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전업농가의 사육두수가 전체의 60%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소규모 농가의 사육두수는 40%에 못 미치고 있다. 2000년도와 1990년의 전체 사육두수 상황을 비교하면 10년 사이 그 비중이 약 두 배 상승하는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사육두수는 점차 증가하여 통계마다 약 10%가량 사육두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체 사육농가의 55%에 해당하는 전업농가에서 사육되는 돼지 마릿수는 91.5%로 사실상 전업농가가 국내에 유통되는 거의 모든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머지 약 10%의 돼지를 약 45%의 소규모 농가가 나눠 사육하고 있다. 대규모 현대화 시설을 확보한 5,000두 이상의 전업농가가 전체 사육두수 중 32.3%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가는 2000년대 이후 점차 퇴출, 급감하고 있는 반면에 대규모 농가와 사육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양돈산업의 집중화와 규모화를 보여준다. 전업농가에 의해 사육형태가 변화하면서 축산규모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생산의 집약화를 낳는다. 지가와 인건비 문제가 큰 한국 농촌의 조건에서 집약화는 특히 중요하다. 지속적인 규모화가 가능하려면 자동화·기계화된 설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양돈의 전업화 및 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육기술지도나 수의보건 서비스, 나아가 시장정보를 비롯한 농장경영·회계서비스 등 이른바 ‘전문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개발·확대된다(신익식, 2009; 홍순찬, 2002, 우성, 1998:155)³¹⁾. 1998년부터 2022년 1월까지 한돈협회 월간지 ‘월간한돈’의 목차를 살펴보면 ‘현장양돈 컨설팅’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로 구성되고 전문적인 양돈장 운영·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

31) 송인주(2013) 「세계화 시대 한국의 농업 산업화에 관한 연구」, p.203.

다. 양돈장의 규모화·시설화로 인해 사육하는 돼지와 직접 마주하는 생산자에서 인력관리, 회계, 협회 활동 등의 경영자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오늘날 양돈장 농장주는 돼지를 생산하는 농민이면서 ‘사장님·대표님’이라는 경영주에 위치해 있는 모호한 경계에 있다.

<그림 7> 제주 양돈장의 현대화 시설



(출처: 연구자 현지조사)

제주지역의 대규모 양돈사업이 시작된 것은 근대화 과정에서 1962년 발족된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이후 이시돌 협회)에 의해서다.

제주의 양돈산업은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농산부산물에 의한 부업양돈의 형태로서 구비생산, 경조사 용도로 사육되었다.³²⁾ 이시돌 협회는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인 옥수수 4만5천 톤을 수입, 중산간 마을 인근 양돈 개척농가단지를 조성하고 한림읍 금악리에 대규모 번식돈과 비육돈 양돈장을 개설, 양돈개척 농가들의 양돈사업을 후원했다.³³⁾ 강태숙 외(2017, 제주축산사)는 제주도 양돈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것은 1962년 발족한 이시돌 협회였으며, 중산간 지역의 개발을 양돈을 통하여 시도한 대규모 양돈사업의 착수였다고 평가한다.

1980년도 이후 번소개량 운동 외에 전업화의 요인으로 1975년부터 시내 일원에서 돼지의 사육이 금지되었고, 제주도내의 소규모 양돈농가는 국내 축산물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힘입어 산업화 규모가 확대되었다.³⁴⁾

이시돌 협회의 축산 현대화를 기반으로 1990년대 축산단지가 조성되고 돼지고기가 일본으로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제주도에서는 양돈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제주는 전국 타지역에 비해 빠르게 양돈산업이 발달하여 왔다. 양돈산업의 현대화 및 집약화 척도를 전업농 비중을 바탕으로 비교하기 위해 전국-제주의 전업농 농가수와 마릿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전국-제주 양돈 전업농 비중

(단위: %)

구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국	농가수	0.3	9.8	24.0	44.2	58.2	55.6
	마릿수	23.2	60.2	77.8	88.3	91.0	91.5
제주	농가수	0.6	52.4	69.1	61.7	66.2	72.9
	마릿수	15.4	85.6	91.5	89.8	91.2	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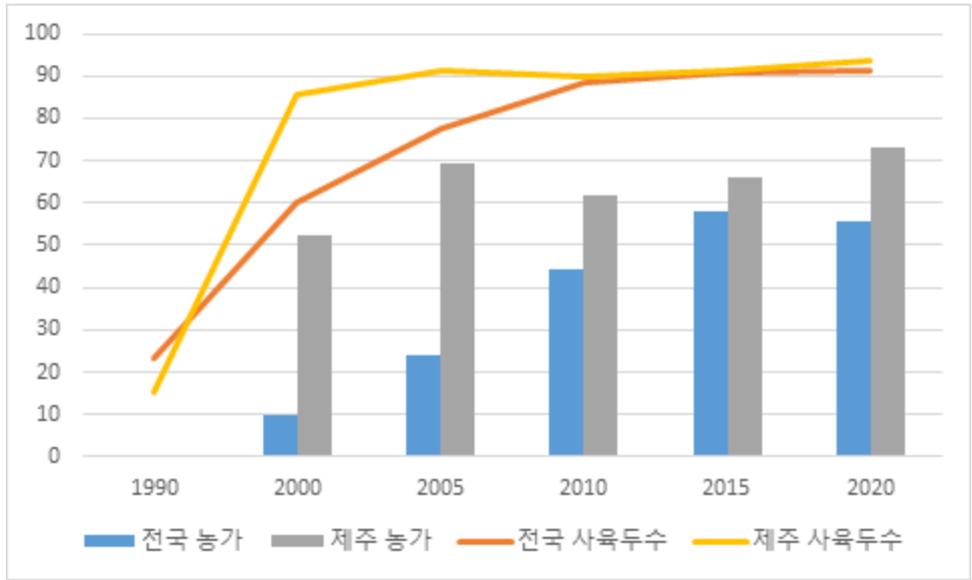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재구성)

32) 최승준, 강태숙(1999) 「제주지역 수출돈의 현황 및 생산농가의 경영분석」, p.116.

33) 현재 이시돌 목장에서는 양돈은 하지 않고 있다. 제주 지역 최초의 전업 목장인 이시돌목장은 현재 우마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1960년대 말 이시돌협회는 비육돈을 생돈으로 홍콩으로 수출했다. 그러나 이시돌협회의 홍콩 생돈수출은 중국의 돼지 덤핑정책으로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시돌협회는 1974년부터 일본에 돈육 수출을 개시했다. 일본 수출을 위해 금악리에 돼지도축장과 냉동저장시설을 완비했고, 돼지고기의 대일 수출은 1977년 까지 계속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2009)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1』, p.397.

34) 김자경(2017) 「커머닝 개념을 통한 마을의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p.98.

<그림 8> 전국-제주 양돈 전업농 비중 그래프



제주의 전업농 비중은 전국 대비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1990년 전업농가는 0.6%로 전국의 0.3%와 큰 차이가 없으나, 2000년대 이후 급증하여 제주는 52.4%를 차지하여 전국 대비 약 5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2000년대 이후 타지역보다 빠르게 양돈산업의 전업화가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강태숙 외(제주축산사, 2007)에 따르면 제주 양돈산업의 대규모 집단 사육은 1992년부터 시작하여 1995년 대규모 사육을 하는 축산단지가 조성되었다. 타시도 대비 대규모 축산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 규모화·집약화가 가능했고, 당시 현대화 시설을 도입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빠른 전업농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양돈업의 주요 집적지인 제주 서부 지역 금악, 상명을 중심으로 한 양돈 생산 농가 인터뷰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 : 사장님 그때 몇 년부터 하셨다고 했죠?

A농장주 : 나 96년.

연구자 : 그때는 상명에서는 초반이셨어요?

A농장주 : 그전부터 옛날 했던 사람들이 있어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친구범 지사가 축산 규모화·단지화 하면서 농림부 지원받으면서 했거든.³⁵⁾

2020년 기준 제주 양돈 전업 농가수는 72.9%로 전국 55.6% 대비 비중이 높지만 마릿수 비중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없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제주에는 5천 두 이상의 대규모 농가수의 비중은 매우 낮고, 1천~5천 두 규모의 중소농가가 사육 농가수 뿐만 아니라 사육두수에서도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8> 사육규모별 농가수

시도 별	구분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전국	합계	133,428	23,841	12,290	7,347	4,909	6,078
	1,000 미만	133,022	21,501	9,339	4,099	2,054	2,741
	1,000~5,000	368	2,211	2,755	2,943	2,466	2,954
	5,000~10,000	28	94	133	216	276	280
	10,000 이상	10	35	63	89	113	103
제주	합계	1,572	290	246	321	284	262
	1,000 미만	1,562	138	76	123	96	71
	1,000~5,000	10	149	164	189	176	178
	5,000~10,000	0	2	3	7	7	8
	10,000 이상	0	1	3	2	5	5

(출처: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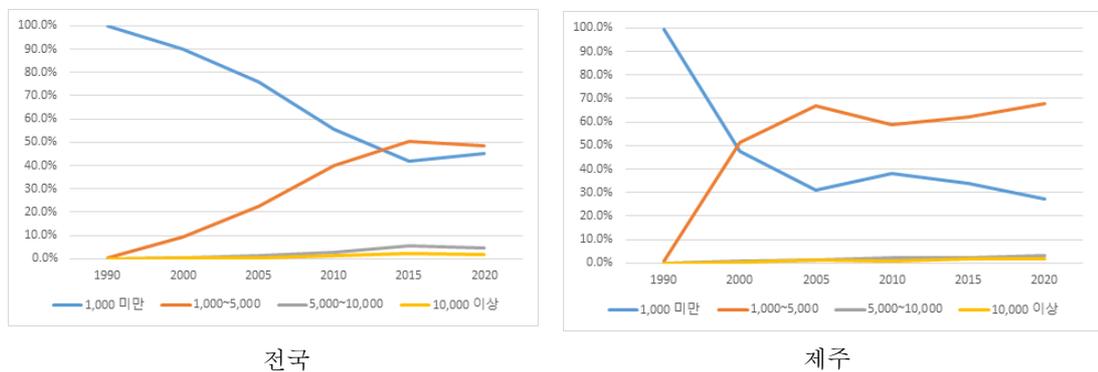
사육 규모별 농가수를 전국과 비교하여 제주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국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1천 두 미만인 농가수는 감소하고 있다. 5천 두 이상의 대형 농

35) 양돈산업의 대규모 집단 사육은 1992년부터 시작한 축산단지 조성으로 당초의 추진 목표는 가축 사육 시설의 단지화로 축산입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자재의 구매, 생산물 판매, 방역 및 분뇨 처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따라서 신규조성 축산단지(북제주군 : 양돈 3, 양계 1/ 서귀포시 : 양돈 1) 5개소에 기금 및 지방비 보조와 융자 등을 지원 추진하였으나 일부 지역의 단지 조성은 분뇨의 악취와 해충 발생 등의 이유로 집단민원을 야기시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대립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1995년 대규모 사육을 하는 축산단지가 조성됨으로 축사내외의 악취 감소와 해충 구제로 맑고 깨끗한 축산환경 유지는 물론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없애기 위해 도와 시군비로 5개 단지 내 1년간 사용할 악취제거 효소제를 전량 지원하기 시작함으로써 타도 자치단체에서도 문의하여 올 정도였다.(강태숙 외(2007) 앞의 책, p.201.)

가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제주의 경우에는 대형농가수의 변화가 거의 없다. 제주의 환경규제 및 양돈장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신축 및 증축 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대형농가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장의 제주 돼지고기 브랜드와 연관시켜 해석해 볼 수 있다. 제주는 기업형 대형농가 수가 많지 않고, 중소농가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농가 자체적인 유통, 가공 등을 갖춘 브랜드를 설립하기가 어려워 양돈농협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브랜드 돼지고기를 생산하게 된다.

<그림 9> 사육규모별 농가 비중 그래프



(출처: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재구성)

사육규모별 농가 비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1천 두 미만의 영세농가와 1천~5천 두 중소농가의 비중 차이이다. 전국의 경우에는 중소농가와 1천 두 미만의 농가 비중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제주의 경우에는 약 40%의 차이를 나타낸다.

전국의 경우, 1천 두 미만 농가는 하향곡선을 나타내다 2015년 소폭 상승했다. 1천~5천의 중소농가는 상향곡선을 보이고 2015년 이후 소폭 하락했다. 2010년 이후 중소농가 비중이 앞서지만 2020년에는 거의 비슷한 비중을 나타낸다.

반면 제주의 경우에는 1천 두 미만 농가는 1990년에서 2005년까지 급격하게 하락하다 2005년에서 2010년에 상승했고, 2010년 이후 소폭 하락하고 있다. 1천 두 미만 영세농가의 감소 원인은 2017년 한림읍 상명리 가축분뇨 사태³⁶⁾ 이후

사후조치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제주시 당국이 마을에 인접한 소규모·고령농가의 폐업을 유도하면서 29개 양돈장이 자진 폐업 또는 합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기술발전에 힘입어 국내 양돈산업 또한 집약화·전업화·기계화 등이 이루어졌다. 제주에서는 이시돌협회의 발족으로 양돈산업의 현대화·전업화가 앞당겨졌다. 이후 도정의 주도로 양돈산업이 제주도의 수출 육성사업으로 선정되고 양돈단지가 조성되면서 제주 양돈산업은 2000년 이후 타시도에 비해 빠르게 전업화가 이루어진다.

2. 양돈 농장주 고령화

통계청의 ‘2020 고령자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인 812만 5천 명으로 나온다. 이에 따른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미 2020년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인 지역은 전남(23.1%), 경북(20.7%), 전북(20.6%), 강원(20.0%) 등 4개 지역이 있다. 고령화 및 인구문제는 농촌에서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 농림어업 총조사’를 살펴보면 농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020년 기준 전체가구의 5%를 차지한다. 농가 인구는 4.5%이다. 생산가능 인구인 15~64세의 비율은 2000년 66.9%에서 2020년 53.3%로 약 13%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인 고령인구는 2000년 21.7%에서 2020년 42.3%로 약 20%가 급등하였다.

이러한 고령화 문제는 농업을 이어받을 승계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제주의 경우, 양돈장 농장주 고령화로 인해 승계가 발생하거나 매매를 하는 양돈장이 늘어간다.

먼저 승계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영농승계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영농승계자란 나이와 관계없이 가족 중 경영주의 대를 이어 농사에 종사할 사람을 말하며, 영농후계자는 영농승계자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경영주

36) 2017년 7월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산간에 있는 용암동굴 습굴에 8500t이 넘는 돈사 분뇨가 무단으로 버려진 사건. 이후 6개 양돈장이 허가 취소됐다.

의 다음세대에 농사를 직접 맡아 지을 사람을 의미한다(통계청, 농업통계용어).

<표 9> 영농 승계자 유무

(단위: %)

연도별	승계자 있음	승계자 없음	아직 잘 모르겠음
1990	16.4	83.6	
1995	13.1	86.9	
2000	11.0	89.1	
2005	3.5	96.5	
2014	8.4	61.9	29.6
2019	9.4	58.9	31.7

(출처: 「1990, 1995, 2000, 2005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 통계청.

「2014, 2019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재구성」 농촌진흥청)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에서 세대간 경영이양은 농업을 유지하는 근간을 형성한다. 가족농은 경영주를 포함하여 가족원의 노동력공급으로 영농에 필요한 노동력의 대부분을 충당하며 영농을 돕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경험을 쌓고 부모의 농업을 승계받아 다음 세대의 경영주가 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전통적인 가족농이 이어져왔다.³⁷⁾ 농지구매 및 노하우 전수 등 농업의 진입장벽은 존재하고 승계의 경우에는 농지 및 시설구매, 노하우 전수 등이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려 오기 때문에 창업농업으로의 전환보다는 진입하기 수월하다. 전통적으로 농산업은 가족농의 영농승계를 통해 농업 인력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³⁸⁾

축산 부문은 상시 고용 인력을 주로 활용해야 하고 자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경영주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다. 그럼에도 축산 부문에서도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1991~2018년 축산을 제외한 농가 고령화율은 20.6%에서 61.4%로 증가했고, 축산농가 고령화율은 11.2%에서 39.7%로 늘어났다.³⁹⁾

2000년대 이후 축산업의 전업화·전문화·규모화 등으로 인해 기존의 고령 또는 영세농가의 폐업 등으로 그 수가 빠르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고령화율의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율의 증가폭은 전체 농업과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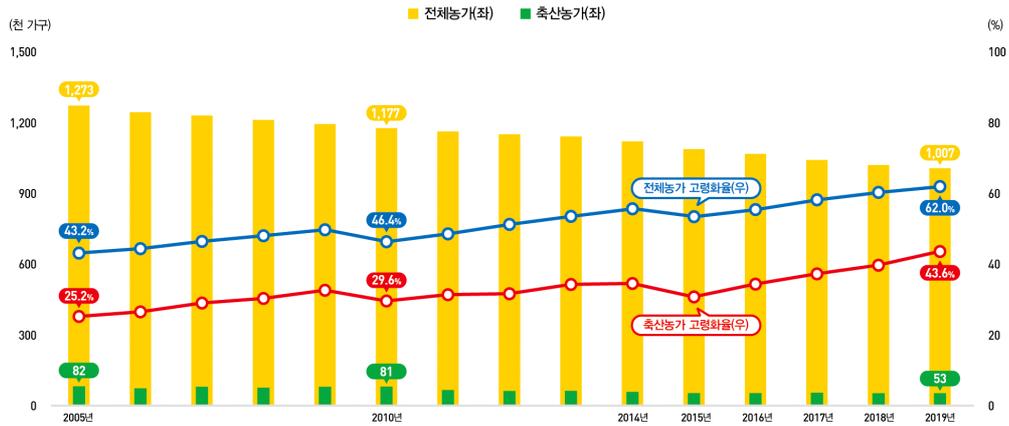
37) 강혜정(2008) 「영농승계자 보유 농가의 특징과 시사점」, p.832.

38) 황정입 외(2018) 「농가 경영이양에 대한 영향요인」 pp.57-58.

39) 유찬희 외(2019) 앞의 책, p.61.

65세 이상 축산업 경영주가 전체 농업 평균에 비해서는 적지만 향후 지속적인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농업 및 축산업 경영주 고령화 추이



(출처: 통계로 본 축산업 구조변화, 통계청)

고령화율에서는 전체 농업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축산 또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농의 유지와 승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축산의 경우 전체 노동시간에서 가족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87.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경영형태는 가족경영이 94.7%였으며, 법인(기타)은 5.3%였다. 특히, 양돈 농가는 법인이 13.0%로 가장 높았으며, 산란계농가가 9.5%를 차지하고 있다.⁴⁰⁾

앞서 말했듯이, 축산의 경우 악취 및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축사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창업비용이 많이 들어 신규 진입보다 승계 형태로 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승계가 향후 축산업의 주요한 문제로 보인다.

H농장주 : “한국사람을 못 쓰는 게 기피하고, 그 돈 맞춰서 나도 한국사람 쓰기가 일이라는 게 하면은 일반회사는 승진 일을 배워서 창업을 한다든가 축산은

40) 최현호 외(2017) 「축산영농 승계 실태 및 의향에 관한 연구」 p.264.

돈도 많이 들고 힘들어. 축사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접근을 못해. 대출받고 해도 한우도 10억은 갖고 있어야 대출 꺼서.”

<표 10> 작물별 농업 노동 투입 시간(전국)

(단위: 백만 시간)

구분	노동력 원천								합계
	가족노동		고용노동		품앗이		자원봉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채소	127.2	136.5	7.9	45.3	1.2	301	5.1	5.3	331.6
과수	66.8	47.4	5.8	15.2	0.4	0.4	5.2	3.2	144.3
축산	64.7	30.0	8.8	4.2	0.0	0.0	0.7	0.2	108.6
곡류	45.8	17.0	1.5	0.6	1.9	1.1	3.3	0.7	71.9
특용	28.2	32.1	0.9	5.3	0.1	0.7	1.7	10.	70.0
두서	24.7	28.8	1.1	4.8	0.2	0.4	1.4	10.	62.5
화훼	12.9	9.9	4.5	7.0	0.2	0.3	0.5	0.4	35.7
기타	6.6	3.7	0.1	0.0	0.0	0.0	0.2	0.1	10.8
합계	376.9	305.5	30.6	82.4	4.0	5.9	18.2	11.9	835.4

(출처: 농업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과제, 유찬희 외, 86페이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농가의 영농승계 의향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향후 축산분야의 영농승계 대책수립 및 중·장기적인 축산기술개발과 보급전략 마련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2015년 축산 영농승계자 실태 및 의향’⁴¹⁾을 살펴보면 축산업에서의 승계 문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축산농가의 절반 정도는 아직 승계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양돈의 경우 47.2%로 축산업 중에서 영농승계자를 확보한 비중이 가장 높다.

“한우농가가 전국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노령화 때문에, 자식들이 돈이 돼야 덤비는 거지. 정책적으로도 규모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본인이 더 키워야 돈이

41) 2015년 5월~6월에 축산농가 607개소의 경영주를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태 및 의향을 조사하였다.

되고 그래야 관리되지, 예전처럼 집에서 키우면 무허가니 질병도 많고 그런 거 때문에.”

<표 11> 사육규모별 영농승계자 유·무 및 경영참여 형태

(단위: 명, %)

구 분	합계	영농승계자 유무		영농승계자 현재상황			영농승계자 경영 참여형태				
		유	무	계	참여중	예정	계	경영주	승계자	공동	
한 우	계	186 (100.0)	68 (36.6)	118 (63.4)	68 (100.0)	29 (42.6)	39 (57.4)	29 (100.0)	14 (48.3)	7 (24.1)	8 (27.6)
	50마리 미만	44 (100.0)	6 (13.6)	38 (86.4)	6 (100.0)	2 (33.3)	4 (66.7)	2 (100.0)	0 (0.0)	1 (50.0)	1 (50.0)
	50~ 100마리	56 (100.0)	13 (23.2)	43 (76.8)	13 (100.0)	3 (23.1)	10 (76.9)	3 (100.0)	2 (66.7)	0 (0.0)	1 (33.3)
	100마리 이상	86 (100.0)	49 (57.0)	37 (43.0)	49 (100.0)	24 (49.0)	25 (51.0)	24 (100.0)	12 (50.0)	6 (25.0)	6 (25.0)
젖 소	계	108 (100.0)	49 (45.4)	59 (54.6)	49 (100.0)	26 (53.1)	23 (46.9)	26 (100.0)	16 (61.5)	1 (3.8)	9 (34.6)
	40마리 미만	48 (100.0)	17 (35.4)	31 (64.6)	17 (100.0)	7 (41.2)	10 (58.8)	7 (100.0)	7 (100.0)	0 (0.0)	0 (0.0)
	40~ 60마리	42 (100.0)	20 (47.6)	22 (52.4)	20 (100.0)	11 (55.0)	9 (45.0)	11 (100.0)	4 (36.4)	1 (9.1)	6 (54.5)
	60마리 이상	18 (100.0)	12 (66.7)	6 (33.3)	12 (100.0)	8 (66.7)	4 (33.3)	8 (100.0)	5 (62.5)	0 (0.0)	3 (37.5)
양 돈	계	108 (100.0)	51 (47.2)	57 (52.8)	51 (100.0)	28 (54.9)	23 (45.1)	28 (100.0)	13 (46.4)	3 (10.7)	12 (42.9)
	1천마리 미만	9 (100.0)	1 (11.1)	8 (88.9)	1 (100.0)	1 (100.0)	0 (0.0)	1 (100.0)	1 (100.0)	0 (0.0)	0 (0.0)
	1~ 2천마리	34 (100.0)	21 (61.8)	13 (38.2)	21 (100.0)	10 (47.6)	11 (52.4)	10 (100.0)	5 (50.0)	1 (10.0)	4 (40.0)
	2천마리 이상	65 (100.0)	29 (44.6)	36 (55.4)	29 (100.0)	17 (58.6)	12 (41.4)	17 (100.0)	7 (41.2)	2 (11.8)	8 (47.1)
산 란 계	계	95 (100.0)	41 (43.2)	54 (56.8)	41 (100.0)	30 (73.2)	11 (26.8)	30 (100.0)	14 (46.7)	4 (13.3)	12 (40.0)
	3만마리 미만	21 (100.0)	6 (28.6)	15 (71.4)	6 (100.0)	4 (66.7)	2 (33.3)	4 (100.0)	2 (50.0)	1 (25.0)	1 (25.0)
	3~5 만마리	17 (100.0)	4 (23.5)	13 (76.5)	4 (100.0)	3 (75.0)	1 (25.0)	3 (100.0)	1 (33.3)	1 (33.3)	1 (33.3)
	5만마리 이상	57 (100.0)	31 (54.4)	26 (45.6)	31 (100.0)	23 (74.2)	8 (25.8)	23 (100.0)	11 (47.8)	2 (8.7)	10 (43.5)
육 계	계	110 (100.0)	41 (37.3)	69 (62.7)	41 (100.0)	26 (63.4)	15 (36.6)	26 (100.0)	19 (73.1)	4 (15.4)	3 (11.5)
	3만마리 미만	16 (100.0)	2 (12.5)	14 (87.5)	2 (100.0)	1 (50.0)	1 (50.0)	1 (100.0)	1 (100.0)	0 (0.0)	0 (0.0)
	3~5 만마리	27 (100.0)	7 (25.9)	20 (74.1)	7 (100.0)	5 (71.4)	2 (28.6)	5 (100.0)	4 (80.0)	1 (20.0)	0 (0.0)
	5만마리 이상	67 (100.0)	32 (47.8)	35 (52.2)	32 (100.0)	20 (62.5)	12 (37.5)	20 (100.0)	14 (70.0)	3 (15.0)	3 (15.0)

(출처: 2015년 축산 영농승계자 실태 및 의향, 농촌진흥청)

양돈의 경우 규모별로 살펴보면 영농승계자 확보는 1천~2천 두 규모의 경우 61.8%, 2천 두 이상 44.6%, 1천 두 이하의 영세농의 경우 11.1%의 비율을 보인다. 양돈업의 경우 5천 두, 1만 두 이상의 대규모 전업·기업농가도 있기 때문에 규모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양돈 전체 표본 108 농가 중 2천 두 이상이 65개 농가, 1천~2천 마리가 34개 농가, 1천 두 이하가 9개 농가로 고른 분포를 띠지 않기 때문에 위의 수치를 통해 정확한 예측은 힘들다. 양돈과 산란계를 제외한 다른 축종은 사육두수가 늘어날수록 승계자 확보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양돈장 승계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의 양돈 경영실태 자료와 일본의 양돈농가 승계자 확보 유무 및 경영 형태에 관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 2014년의 자료는 한돈협회에서 주관한 자료이다. 2019년도 자료는 김다영(2020)의 논문에서 나온 자료를 사용하였다. 김다영의 경우 ‘후계자 없으나, 육성계획은 있다’의 항목을 한돈협회에서 주관한 다른 두 개의 표 내용인 후계자 ‘없다’로 포함 시키면 41.3%의 수치를 나타낸다. 승계자 확보 농가는 2010년 20.5%, 2014년 34.7%, 2019년 38.0%로 2014년 이후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승계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는 2010년 42.1%, 2014년 32.2%, 2019년 41.3%로 확보한 농가보다 확보하지 못한 농가가 많다. 그러나, 전체 농업에 비해 양돈농가는 승계자 확보율의 비중이 매우 높다.

<표 12> 양돈농가 승계자 확보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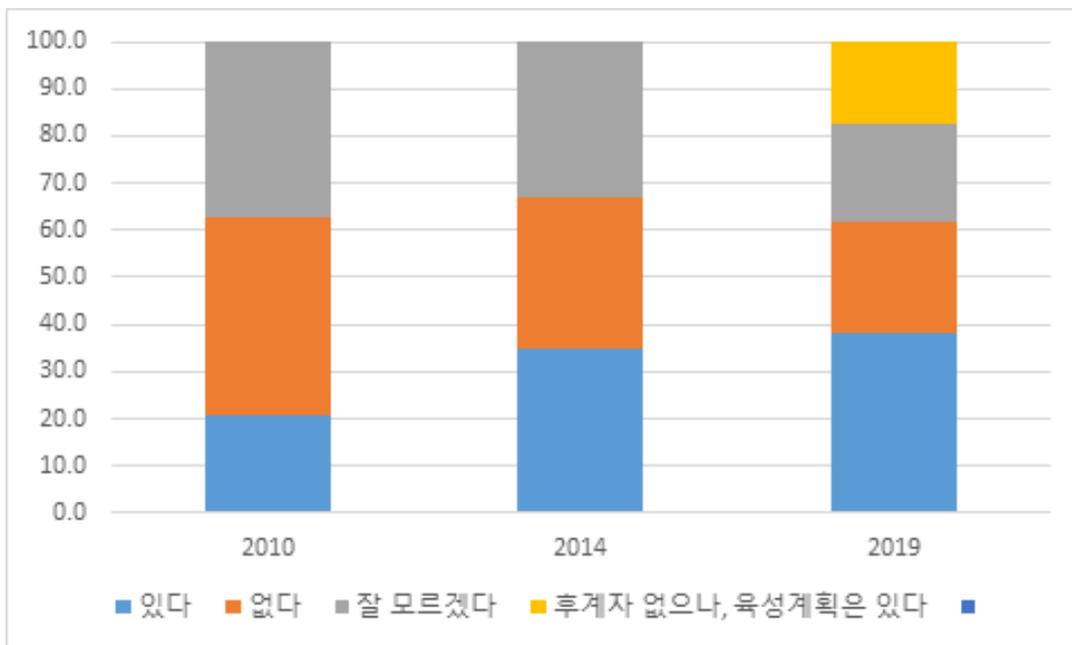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후계자없으나, 육성계획은있다
2010	20.5	42.1	37.4	
2014	34.7	32.2	33.2	
2019	38	24	20.7	17.3

(출처: 2010 양돈 경영실태조사, 2014 전국 한돈농가 경영실태조사, 양돈농장 경영 지속의 영향요인 분석(김다영, 2020)⁴²⁾ 자료 재구성)

2014, 2019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조사에서 승계자 있음의 경우만 살펴 보면, 2014년 8.4%, 2019년 9.4%에 비해 양돈의 경우 2014년 34.7%, 2019년 38.0%로 약 4배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는 양돈업이 일반 농업에 비해 노동력 대비 수익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11> 양돈농가 승계자 확보 유무 변화



양돈 규모별 후계자 여부를 살펴보면 1천 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규모와 후계자 확보율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았다. 다만, 1천 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 전업농가와 확보율의 차이가 뚜렷했다. 2010년의 경우 3천~5천 두 미만이 29.28%로 가장 높았고 1천~2천 두의 경우 29.01%, 5천 두 이상의 경우 26.55%, 2천 두 미만의 경우 18.37%, 1천 두 미만의 경우 9.09%의 비중을 보였다.

42) 설문 조사는 두 지역에 걸쳐 2019년 8월부터 두 달간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0호 농가에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대면조사와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155호의 농가가 질문에 응답하였고, 설문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5부의 설문지를 폐기하고 150부의 유효한 표본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STATA 14.1를 이용하였다.

<표 13> 2010 양돈 규모별 후계자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자녀는 있으나 잘 모름	합계
1,000두 미만	응답수	30	188	112	330
	비율	9.09	56.97	33.94	100
~2,000두미만	응답수	165	380	353	898
	비율	18.37	42.32	39.31	100
~3,000두 미만	응답수	103	120	132	355
	비율	29.01	33.80	37.18	100
~5,000두 미만	응답수	65	84	32.88	222
	비율	29.28	37.84	48	100
5,000두 이상	응답수	30	35	48	113
	비율	26.55	30.97	42.48	100

(출처: 2010 양돈경영실태 조사, 한돈협회)

2014 전국 한돈농가 경영실태조사 발표자료에는 규모별 후계자 여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축산 영농승계자 실태 및 의향(농촌진흥청)의 자료로 대체해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고자 한다. 2015년의 경우 2천 두 이상이 61.8%, 1천 두 미만이 47.2%, 1천~2천 두는 11.1%의 비중을 보였다.

<표 14> 2015 양돈 규모별 후계자 여부

구분		있다	없다	합계
1천마리 미만	응답수	51	57	108
	비율	(47.2)	(52.8)	(100.0)
1~2천마리	응답수	1	8	9
	비율	(11.1)	(88.9)	(100.0)
2천마리 이상	응답수	21	13	34
	비율	(61.8)	(38.2)	(100.0)

(출처: 2015년 축산 영농승계자 실태 및 의향, 농촌진흥청. 원자료 재구성)

2019년의 경우 2천~3천 두의 경우 11.3%, 3천~5천 두 미만이 8.0%, 5천~1만 두 미만이 6.7%, 1천~2천 두 미만이 6.0%, 1만 두 이상이 5.3%, 1천 두 미만이 0.7%의 비중을 보였다.

<표 15> 2019 양돈 규모별 후계자 여부

구분		후계자 있다	후계자 없으나 육성계획 있다	후계자 없고 육성계획 없다	잘모르겠다
1,000두 미만	응답수	1	0	6	0
	비율	0.7	0.0	4.0	0.0
~2,000두 미만	응답수	9	11	12	11
	비율	6.0	7.3	8.0	7.3
~3,000두 미만	응답수	17	6	10	5
	비율	11.3	4.0	6.7	3.3
~5,000두 미만	응답수	12	2	6	11
	비율	8.0	1.3	4.0	7.3
~10,000두 미만	응답수	10	6	1	3
	비율	6.7	4.0	0.7	2.0
10,000두 이상	응답수	8	1	1	1
	비율	5.3	0.7	0.7	0.7
합계	응답수	57	26	36	31
	비율	38	17.3	24.0	20.7

(출처: 양돈농장 경영 지속의 영향요인 분석(김다영, 2020))

각 년도마다 특정 사육규모의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없지만 양돈규모가 작은 1천 두 미만의 양돈농가가 승계의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보인다.

한편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사단법인 일본양돈협회(JPPA)는 2021년 8월 1일 기준으로 등록 확인된 2,703개소 양돈생산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2022년도에 발간한 "양돈농업실태조사보고서(전국집계결과) 2021년도"의 경영 관계 조사 내용에서 경영형태와 승계 현황을 알 수 있다.⁴³⁾

일본의 경우 한국과 대조적으로 가족경영의 비율이 30.4%, 법인경영이 주를 이루는 64.7%를 보인다. 법인경영을 통해 한국 대부분의 가족경영이 겪고 있는 승계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열화의 정도가 7.1%, 경영타입은 번

43) 「養豚農業実態調査報告書(2022) (全国集計結果) 令和3年度」一般社団法人日本養豚協会(JPPA):独立行政法人農畜産業振興機構 養豚経営安定対策補完事業, pp.8-12.

식과 비육을 농장에서 함께 하는 일관경영을 보인다. 이는 농장에서 돼지의 모든 생애를 관리 할 수 있는 시설, 기술과 규모가 갖춰졌음을 의미한다. 후계자 유무와 관련해서는 27.6%가 정해져 있고 18.8%는 대상자는 있지만 현재는 정하지 않은 경우로, 약 46%가 후계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후계자가 있는 경우 한국의 34.7%(2014 전국 한돈농가 경영실태조사)에 비해 좀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위의 표에서 법인경영이 64.7%를 이루기 때문에 경영형태가 후계자와 관계 없애 비율이 17.9%를 보인다. 한국과 경영방식의 차이로 인해 향후 승계와 관련한 내용에도 변화를 준다.

<표 16> 일본양돈 경영형태

(단위: %)

경영형태 A	비율
개인경영(가족노동주체)	30.4
법인경영(농사조합법인·유한회사·주식회사)	64.7
상기 이외의 법인 경영	0.5
농업협동조합법인(농협 등) 직영 양돈장	0.8
기타 (도도부현, 공익법인, 학교법인 등)	3.6

(단위: %)

경영형태 B	비율
회사, 농협, 민간양돈장 등 계약·예탁농장임	7.1
회사, 농협, 민간양돈장 등 계약·예탁농장이 아님	92.9

(단위: %)

경영타입	비율
일관경영	84.1
비육경영	10.3
번식경영	5.6

(출처: 2021년 양돈농업실태조사보고서, 일본양돈협회)

<표 17> 일본양돈 후계자 유무

(단위: %, 세)

후계자의 유무	비율	평균연령
정해져 있다	27.6	37.7
대상자는 있지만 현재는 정하지 않았다	18.8	25.8
자신이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음	14.5	-
후계자는 없다·후계자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21.1	-
경영형태가 후계자와 관계없다(주식회사 등)	17.9	-

(출처: 2021년 양돈농업실태조사보고서, 일본양돈협회)

전국의 양돈농가와 마찬가지로 제주 또한 양돈농가 농장주의 고령화에 따른 고용 인력수급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농장주 1세대의 고령화에 따라 후계농에 의한 경영승계를 진행하는 양상을 인터뷰를 통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자가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를 방문해 현재 제주 양돈 후계농 현황에 관해 물었지만 협회 차원에서 현황조사를 따로 진행한 적은 없고 협회 소속의 후계농 커뮤니티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농장주 고령화로 인해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제주도내 양돈 승계 관련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IV. 변화하는 제주 양돈산업과 향후 전망

1. 양돈현장의 행위 주체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

돼지를 키워내는 양돈현장에서 주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농장주가 2세대 후계농으로의 승계 또는 승계과정에 있고 사료관리, 배분, 분뇨처리 등의 단순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내국인에서 이주노동자로 대체되었다. 이 장에서는 연구자가 축산농가 현장에서 조사한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양돈현장 주체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후계농

제주 축산단지 조성이 이루어진 1990년대에 전업한 경영주를 1세대로 보면 현재 1세대 농장주의 고령화로 인해 2세대 후계농이 등장하고 있다. 양돈장 현지조사에서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농장주와의 인터뷰를 통해 승계의 직접적인 이유 및 후계농이 겪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표 18> 축산 농장주 및 후계농 면접 조사 대상

농가명	축종	농가위치	이주노동자	농장 규모(두)	농장경영 형태	후계농 연령대	승계이유
A	돼지	제주시 한림읍	2명(캄보디아)	2,500	1,2세대	30대	2세대 전업
B	돼지	제주시 한림읍	2명(태국)	1,800	2세대	50대	2세대 전업
C	돼지	제주시 애월읍	4명(네팔)	4,500	1,2세대 농장장	30대	2세대 전업
D	돼지	제주시 애월읍	4명(캄보디아, 네팔)	6,000	2세대	30대	2세대 전업
E	돼지	제주시 한림읍	내국인		2세대, 농장장	50대	1세대 사망
F	돼지	제주시 한림읍	1명(중국)	2,000	1,2세대	40대	1세대 고령화
G	돼지	제주시 노형동	1명(캄보디아)	2,000	1,2세대 농장장	30대	2세대 전업
H	한우	제주시 회천동	1명(베트남)	470	2세대	40대	1세대 사망
I	한우	제주시 구좌읍	1명(네팔)	220	2세대	40대	1세대 사망

승계의 이유는 첫째, 부모세대의 고령화 및 사망이다. 앞서 말한 1세대의 경우 현재 60~70대가 되었고 이주노동자 등 외부인력을 고용하여 운영한다고 하지만 인력 공백 및 일손이 부족했을 때는 직접 육체노동을 해야 한다.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더이상 양돈장을 운영·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 내부에서 양돈장 처분을 결정하고 승계 의사가 있는 경우 2세대는 주말에 양돈장을 나오면서 양돈장 경영에 관한 승계를 받는다.

예상치 못한 농장주의 사망으로 인해 2세대가 승계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승계를 위해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돈장 매매를 통한 처분을 하거나 농장장을 따로 두어 전반적인 관리를 맡긴다. 부모세대의 고령화 및 사망으로 인한 승계의 경우에 후계농의 나이는 대부분 40~50대로 양돈업을 하기 이전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전직하는 경우이다.

둘째, 농장 경영으로의 이른 전업이다. 인터뷰를 통해 만나 본 30대의 비교적 젊은 후계농의 경우에는 부모의 고령화로 인해 승계를 이양하기보다는 부모세대의 양돈장 기반을 바탕으로 한 전업의 경향이 나타났다. 대학에서 축산학과 등 양돈 관련 전공을 하지 않고 대학졸업 후 다른 경험을 하다 30대에 들어 진로를 고민하는 등 현실적인 상황에서 양돈장 승계를 택하고 전업으로 양돈장 경영에 대해 배우며 승계를 준비하는 것이다.

C후계농 : 학교를 좀 더 오래 다니다가 00 경제사업부에서 일했어요.

연구자: 원래 물려받으실 생각은 있으셨어요?

C후계농 : 네. 어렸을 때 있었다가 중간에 다른 거 하다가, 나이 서른 되고 이제 뭐 경제일도 안 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연구자: 농장하시기 전에 무슨 일 했어요?

B농장주 : 포크레인만 10년 했어요, IMF랑 뭐랑 안 좋아지고 하니까 집에 들어와서 일이 없어서 집에 들어와서 하게 된 거죠.

양돈장 승계의 본질적인 이유로 양돈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한국사회의 가족중심 경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주의 양돈장은 악취 및 환경문제로 인해 더 이상의 신축 및 증축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제주돼지, 흑돼지를 찾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질병, 사료값 폭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적인 농장운영이 가능하다. 공장식·현대화된 축산시설, 이주노동자 등의 노동력 제공 등으로 인해 경영주가 직접 참여하는 노동시간 대비 수익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의 경우, 본인들이 양돈장 초창기에 닦아 놓은 기반을 승계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아들 중심의 승계를 양돈업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승계 대상으로 아들을 지목하고 딸의 경우는 없었다. 이는 현재 40~50대의 2세대 후계농의 경우에도 같았다. 한국의 장자 우선 문화와 달리 연구자가 인터뷰한 농장주는 아들이 두 명 이상인 경우 양돈업에 적합한 성격 및 직업 안정성에 따라 후계자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보였다.

F농장주: 작은 아들왕 하카 햄주게 저거 새로 들어가난(신축사)⁴⁴⁾

00협회에 사무하당 거기 있는 게 백번 나온 거 닳은디.

근디 아방 몸도 안 좋고 우리 이렇게 하고 이시난 그것이 받아보카 해부난 투자햄찌게.

연구자: 삼촌네는 아들 둘에 딸하나파? 근디 왜 큰아들 안주고?

그럼 큰아들이 갖젠 안해마씨?

연구자: 요 농장은 작은아들이 햄직허다. 농장경영도 잘해야주.

큰아들은 책읽고 조용한 아이라부난.

작은아들은 토요일에 오면 초음파검사도 하고 그것도 잘하고,

돼지 돌아가는 것도 잘 알아 백신 그런 것도 막 잘허여.

큰아들은 그자 허허, 고민 끝에 작은아들 포락포락 하난.

연구자: ⁴⁵⁾첫째가 물려달라고 하면 물려주시겠어요?

B농장주 : 첫째밖에 없어, 딸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건 원치 않을 거야.

44) 2세대 승계 결정 후 구축사를 철거하고 현대화된 아파트식 신축사에 대해 투자한다.

45) 자녀 구성을 보면 아들 하나, 딸 셋이다.

연구자가 인터뷰한 승계 과정에 있는 전업한 30대 후계농은 농장 내에 거주하며 농장 내 시설 보수, 출산, 이유, 성장, 출하 등의 전반적인 실무 과정에 참여한다. 재무·회계 및 대외활동 등은 바로 승계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승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그럼 아드님은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가르쳐주세요?

A농장주: 지금 와가지고 제일 밑바닥부터 가르쳐주지.

이거 현황판 돼지 숫자 세는 것도 아들놈이 전부하고 나는 와가지고 훑어봐서 지적이나 하고 그거 시키거든. 제일 어려운 똥작업 먼저 해야 된다고 그거 시켜

연구자: 아드님도 고되게 하시네요. 물려받을 생각 있대요?

A농장주: 안하겐 하면 팔아볼겐 하나까 좀 왜 벌써 그렇게 하냐고 좀 기다려 주라고.

G후계농: 지금은 다 맡아서 하고 있으니깐요.

부모님은 대외적인 일들만 하고 계세요 나머지 일들은 저나 직원이 알아서 하나요.

농장이라는 곳이 부수적인 일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대외적인 일들은 부모님이 하고 계시지만, 많거든요. 양돈부녀회 같은 곳도 참석해야 하고, 회의도 많고, 한돈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도 많고요.

지금은 부모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대외적으로 하는 일이 없지만요...

연구자: 지금 농장에서 살고 계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G후계농: 누구라도 있어야죠. 직원들에게만 맡기고 다닐수는 없으니깐요.

만약 제가 더 부지런하게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새벽에 와서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으면 하겠는데, 지금은 차라리 위에 있는게, 사는게 편하고 나은 거 같아요.

2세대의 경우에도 제주의 양돈장의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규제와 사회의 시선에 대해 염려하지만 승계할 경우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양돈장 승계 및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세대 농장주의 경우에도 본인이 초창기부터 어렵게 일궈놓은 양돈장을 아들에게 승계해주고 싶어하고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형 사료기업 또는 대형 농장에 매매 등을 통한 농장 처분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그렇기 때문에 2세가 결혼 등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조건이 갖춰졌을 때 승계를 하고 싶어한다.

B농장주 : 우리아버지는 처음에 다 나에게 이전해줘서 믿지 못하니까 그렇지.
주면 팔아볼까봐 그렇지 나 같아도 아들이 결혼하고 가정 꾸리지 않은 이상
걱정되지...

F농장주: 우리도 이추록 민원이고 뭐고행 성가셔가지고 그냥 팔아부카 해놔주게,
아깝더라고 아들이 아까워하더라고.

거난 직장은 평생 못하는거고 왜 남들도 생판 얼굴 모르는 타지 사람들도
와가지고 하는디. 왜 누굴 위해서 치워버리냐고.

왜 이렇게 넓은, 다른 농장들은 땅도 없다가게.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완전한 승계가 이루어진 후계농의 경우에는 농장 전
반적인 경영에 참여하고 본인의 방식으로 시설 개선 및 사육 프로그램⁴⁶⁾등을 현
대화한다. 1세대 경영 중심 농장의 경우 컴퓨터 등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현황
판에 수기로 작성하는 걸 볼 수 있었다. 2세대 승계 농가는 회계, 사육 프로그램
등을 컴퓨터 또는 휴대폰과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세대변화를 통해 사육방
식 및 경영방식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 축산 경영 방식의 변화



(출처: 연구자 현장촬영)

46) 농장의 경영상황 및 수정일자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농장주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농장주가 현재 농장 운영 애로사항으로 환경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1세대의 경우 계속 변화하는 환경규제에 대해 시설 및 운영방식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한다. 2세대의 경우에도 환경규제 및 액비에 관련한 애로사항이 크다고 한다. 하지만 2세대는 1세대보다는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C후계농: 제일 최고가 환경적인 문제고 저희는 그게 힘들죠.

뭐, 솔직히 와서 검사하거나 그런건 저희는 신경 안써요.

저희는 잘하고 있으니.

연구자: 공무원과의 마찰은 없나요?

C후계농: 1세대 분들은 환경과 직원 오면 나가라고 하고

너 여기 어디라고 들어오냐고 우리 돼지 죽으면 너가 값 물어낼거냐고,

그렇게 해서 아예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죠.

거의 2세대들은 들어와서 봐라 너네가 와서 봐봐라 우리가 못하고 있냐.

아무래도 1세대분들은 옛날에 하던 방식이 있으니 이게 많이 바뀌어버리면

약간 반감이 생기는데, 저희는 요만큼밖에 안 바뀌었으니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으니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아직은.

현재 후계농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외에 애로사항으로 제주에서 양돈산업의 위치, 이미지 등의 하락 등이 있었다. 양돈 농장주 등은 한돈협회, 로타리클럽 등 사회모임을 통해 사회공헌을 하고 이를 통해 이미지 개선을 하고자 한다.

2) 이주노동자

경영 주체의 변화와 더불어 사육에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변화도 일어났다. 양돈장 인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주노동자로의 주체 변환이다. 양돈농장의 경우 더럽고, 힘들다는 이미지와 단순노무의 경우 낮은 급여, 창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일하려는 내국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경영주는 효율 등의 이유로 내국인 노동자를 선호하지만 양

돈장에서 일하려는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힘들고 일을 하더라도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내국인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팀장 및 농장장 등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기 때문에 인건비 등이 높게 책정된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규모가 크지 않은 농장일수록 농장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연구자: 외국인 두신거는 일손이 부족하셔서 두신 거예요?

B농장주: 외국인은 혼자면 돼요. 외국인 한명에 나 한명이면 충분한데 내가 개인적인 일이 많으니까 외국인 둘 데리고 내가 편해지자 해서 데리고 일하게 됐지.

농장장은 350씩 줬는데 보너스까지 해서 더 주고 하면서 3~4년 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끼려고... 외국인들 쓰게 됐지.

연구자: 외국인 분들이 업무를 이해하고 일하는 것은 괜찮았나요?

B농장주: 월급 좀 주면 아이네 잘하거든.
근데 농장장 있을 때 보단 안 좋아 성적이.

연구자: 외국인 고용 이유는?

C후계농: 인건비가 제일 크고 저희도 내국인 쓰고 싶죠.
왜냐면 일에 효율이 달라요. 내국인들이 들어오면 훨씬 잘 하시죠.

양돈업은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지속적인 노동력 공급이 필요하다. 제주는 지역사회가 좁고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역추적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고 적발시 고용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보다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지만 안정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한 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선호한다. 제주 지역 양돈 농장주와의 인터뷰를 통해 2004년 고용허가제 이후부터 이주노동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농장주: 처음에 쓰지가 2000년도 썸 된 거 같은데 그때도 비자발급 받아서 온 아이들 브로커로 안 되는게 육지는 모르겠어 제주도는 걸리면 지역이 좁아 부니까 역추적 하면 다나와 다나오면은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부터는 고용허가가 안 돼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걸 뭐 불법은 못 써 제주도에서는...

연구자: 그럼 외국인노동자 쓸 수 있다는 것은 어디 축협에서 알려줬어요?

A농장주: 농협에서 여기 농협에서(양돈농협).

<표 19> 이주노동자 도입 제도 및 고용 정책의 변화

연도	도입 제도 및 주요 정책 내용
1991.10.	'해외투자기업산업기술연수제도' 도입
1993.11.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
1994.01.	'산업연수생 제도' 시행(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영단체가 관리주체)
2000.04.	연수취업제 도입(연수2년+취업1년, 산업연수생이 일정기간 연수생으로 근무한 후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2002.07.	연수취업제 수정 시행(연수1년+취업2년) '취업관리제' 도입(국내에 호적 또는 친족이 있는 외국국적 동포에게 일부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3년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
2003.0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4.08.	'고용허가제' 시행.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취업관리제에 건설업 분야 추가 허용, 고용허가제 시행과 동시에 고용허가제의 특례로서 취업관리제를 고용허가제에 흡수 통합 함.
2006.	취업관리제 허용업종 확대(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으로 확대)
2007.01.	산업연수제도 고용허가제로 통합, 해외투자연수생제도 유지
2007.03.	'방문취업제'(H-2비자) 도입 (특례고용허가제를 방문취업제로 전환, 연간 쿼터를 설정해 국내에 연고가 없는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적용함)
2009.10.	'고용허가제' 개정(근로계약기간의 3년 연장,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 연장)
2012.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한 특례제도' 시행(출국한 3개월 이후 취업 가능)
2018.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체류자격(E-7-4)' 시행

(출처: 하갑래,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변천과 과제」, 2011. pp.333~389)

양돈농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E-9(비전문 취업비자)를 통해 들어 오고 각자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이 분뇨처리, 사료 분배 등의 단순업무를 하고 있다.

농장주와 이주노동자 교차 인터뷰를 해보면 각자의 입장과 코로나 이전, 이후의 이주노동 인력 상황과 삶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코로나 이후, 농장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주노동자가 들어오지 못함에 따른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H농장주: (코로나 이후) 입국을 못해서 그것 때문에 개네들이 갇이 됐지.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자기네들이 부르는 대로 안주면 안 해. 나도 생각을 잘못했어. 두 번 다 온 다음에 보내야 되는데 내가 계약기간이 있어서 동의를 못해주면 못 가 나도 보면 짜증나고 그런 애들이 뜻이 없는 거잖아. 그럼 일도 안 해 스트레스 안 받고 사실 나는 아직 동의도 안 해주려고 했지 근데 고용센터 얘기하니까 그런 애 있어봤자 사장님만 더 스트레스고 또 절대 욕하지 말랜 하더라고 녹음한다 요즘.

G후계농: 지금은 외국인이 한명이예요. 저희가 코로나 바로 전에 외국인을 새로 한 명 보내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 외국인들이 못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구자: 그 인력 보충을 어떻게 하세요?

G후계농: 그 전에 외국인이 두명일때는 일이 많지는 않았죠.

지금은 일이 타이트하긴 해도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농장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데.

연구자: 여기는 몇 분이서 일해요?

F농장주: 코로나 때문에 못와부난게, 우리 부부랑 조선족 한 사람도 같이.

외국 신청해도 작년에 봄에 신청했는데 안 들어왔서.

이주노동자 인터뷰는 한우, 돼지, 낙농가를 대상으로 총 5회 진행했다. 대부분 농장주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다. E 이주노동자와 같이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답을 농장주를 통해서 듣고 이주노동자는 “네”, “아니”와 같은 단답을 하거나 항상 웃음을 띠며 모든 대답을 해나갔다. 일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어로만 농장주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표 20> 면접 대상 이주노동자

농가명	축종	국적	귀국 후 계획	비고
A	돼지	캄보디아	농지구입 후 농사	비자만기 도래
B	돼지	태국	농지구입 후 농사	이스라엘, 대만 이주노동
C	낙농	네팔	산양사육	교사출신 이주노동자만 인터뷰
D	한우	베트남	주택 구입 및 사업	대만 이주노동
E	한우	네팔	-	의사소통 어려움

축산 농가 이주노동자는 동남아 또는 네팔 출신이었으며 경영주는 2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같은 나라 출신 또는 문화권을 선호했다. 이주노동자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원활함, 식생활 등 생활의 편리함 등의 이유에서였다.

면접 대상 이주노동자 출신지역에 따라 귀국 후 계획 또한 차이를 보인다. 농촌 출신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축적한 자본으로 대규모 농지를 구매하고 귀국 후에 농사를 짓겠다고 했고 도시 출신 노동자는 주택구매 후 여유자금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에서의 이주 기간이 긴 노동자일수록 안정적으로 자본을 축적한 뒤 고국에 있는 농지 및 부동산 구입을 하였다.

한국에 온 계기는 고국에 비해 높은 임금을 통한 자본축적이었다.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 부동산 구입 등을 통해 귀국 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위함이었다.

B, D 이주노동자는 한국에 오기 전 대만, 이스라엘에서 이주노동을 했다. 한국에 온 이유는 이스라엘 등이 급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노동시간 보장 및 체계가 보다 잘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자: 다른 나라에서 일한 적 있어요?

B이주노동자 : 이스라엘 5년, 타이완 6년.

연구자: 이스라엘 일하면 돈 많이 받아요?

B이주노동자 : 여기 좋아. 저기 일 많이, 이스라엘 십이시간.

여기가 좋아. 일 조금 돈 조금.

연구자: 그러면 왜 타이완에서 일 그만 했어요?

D이주노동자 : 타이완 사람 많이. 일 많이 있어. 매일 12시간.

저거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이주노동자의 여가를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양돈단지를 중심으로 주위 농장에서 일하는 같은 나라 이주노동자들과의 교류가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친구들,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글 수업 등 커뮤니티 활동 참석을 하지 않거나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집합금지 등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C 이주노동자들은 네팔 커뮤니티를 통해 휴일에는 제주 관광을 다니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여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면접 대상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기혼으로 일과 후 일상은 직접 요리해서 식사를 하고 가족과의 영상통화를 한다. 대부분의 농장의 경우 현대화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도 연결되어 가족과의 연락에서 큰 문제를 보이지는 않았다.

연구자 : 일 끝나면 뭐해요?, 핸드폰으로 얘기봐요?

A이주노동자 : 네 와이프 얘기 같이 봐요.

연구자 : 친구는 제주도에 있어요?

A이주노동자 : 지금 고향 가요. 시간 지났어요.⁴⁷⁾

연구자 : 다른 농장에 있어요?

A이주노동자 : 동생 여기 사람 친구 많아요.

연구자 : 그럼 그 친구들이랑 뭐하면서 놀아요? 저녁에?

A이주노동자 : 밥 같이 지금 안돼요, 코로나 때문에 흐흐.

A농장주: 가끔와 여기, 근데 이제는 질병때문에 많이 못하는편인데,

전에는 여기 2층에 막 모였지.

연구자 : 여기 000방에 친구들 같이?

A이주노동자 : 네 지금 안돼요, 코로나.

주위 농장 이주노동자들과의 교류는 농장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A농장의 경우 주위 농장주와의 친분을 통해 왕래가 빈번하고 서로 같은 국적의 이주노동

47) E9 비자가 만료되어 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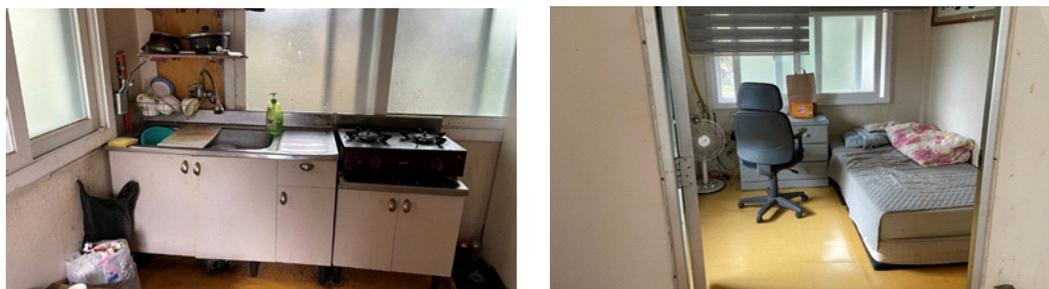
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관계형성에 유리했다. 반면에 농장주가 주위 농장과의 교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주노동자 또한 주변 농장 이주노동자와의 교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저희 예전부터 분위기가 다른 농장 사람들이랑 잘 지내지 않아서 그러다보니 아직도 그런 분위기⁴⁸⁾가 생긴 거 같아요."

B농장주, 이주노동자 : 밖에 절대 안나가. 애네 그래서 좋아.
주말엔 마트가는 거 운전할 수 있으니까 가서,
(이주노동자) 여기가 좋아. 식구 많이 안 좋아.

이주노동자 주거환경을 살펴보면 대부분 농장 내 조립식 건물에 주거한다. 이전 관리실 및 사무실로 쓰던 공간을 주거공간으로 개조해 생활한다. 식사는 주로 농장주가 식료품을 제공하고 이주노동자가 직접 조리해 먹는다. 입맛이 다르고 선호하는 향신료도 다르기 때문에 직접 조리가 농장주,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편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림 13> D이주노동자 숙소



A이주노동자는 한국에 7년 동안 거주하면서 한국음식문화에 적응이 되어 점심의 경우에는 농장주 또는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한다. 한 농장에서 E9 비자 만료

48) 이주노동자 또한 주위 농장 이주노동자와의 왕래가 없다고 한다. 단지 내에 4개 정도의 농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지규모가 큰 한림 등의 지역과 비교했을 때 타지역에 비해 커뮤니티 형성이 어려워 보인다.

시까지 근무하고 한국어 습득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A이주노동자와는 인터뷰 후에 SNS를 통해 안부를 물었다. SNS에는 한국어 공부 관련 게시글이 종종 보였다. A농장주는 A이주노동자는 초등학교까지만 나왔다고 언급했지만 A이주노동자 SNS에 나와 있는 최종학력은 대학교까지였다. A이주노동자는 인터뷰 중에 연구자에게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서 두세 번 이야기를 한다. 다른 한국어 단어 표현과는 다르게 ‘정부’라는 단어는 또렷하게 말한다.

연구자 : 000은 언제 캄보디아로 돌아가고 싶어요? (웃어넘김)

캄보디아 정부가 싫어요?

A이주노동자 : 네.

연구자 : 미얀마, 캄보디아 대통령 나빠요?

A이주노동자 : 네, 똑같아요 지금 미얀마 사람 만날 죽어요.

캄보디아 똑같아요.

픽 죽어요. 지금 캄보디아 사람 다 힘들어요. 말 조심해요.

농장주 인터뷰를 통해 제주 양돈장의 인력 변화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1세대 경영 초창기에는 소규모였고 사료 등의 현대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양돈장의 인력은 농장주와 아내가 주로 하고 바쁠 때 가족의 일손을 빌리는 가족노동의 형태를 보였다. 그 후 기반이 잡히고 규모가 커지면서 내국인 인력을 고용하다 내국인 인력 수요가 줄어들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이후에는 내국인 농장장을 고용하여 실질적인 현장 운영을 맡기고 이주노동자는 단순업무를 한다. 양돈장에 인력이 충분한 경우에 농장주는 회계 관리, 사회활동 등의 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흑돼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흑돼지를 둘러싼 환경에는 지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변화의 요인에는 수입산 돼지고기의 증가, 소비자의 동물·환경 인식변화, 관광객 수요 의존성 등이 있다.

돼지고기 소비량의 증가와 함께 소비구조에서는 수입산 돈육이 차지하는 비중

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변화가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돼지고기 소비량이 2% 미만으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2010년 이후에는 약 4.5%의 증가율을 보인다.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량은 소폭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에 반해 수입산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약 6%의 증가율에서 EU산 및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의 증가와 더불어 2010년대에는 약 9%의 증가율을 보인다.

특히 수입산의 경우 스페인산 이베리코 돼지 열풍이 불었던 2018년도에는 양돈업계에서 ‘이베리코 쇼크’라고 불릴 정도로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포함한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50%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게다가 한돈에 비해 더 비싼 가격에 팔리는 등 값이 싸기 때문에 먹는 수입산이 아니라 맛있기 때문에 먹는 수입산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표 21> 돼지고기 소비구조(2000 ~ 2018년)

(단위: 톤)

구분	수입(A)	국내산(B)	소비량(C)	A/C	
2000	105,891	674,017	779,908	13.6	
2005	161,915	676,564	838,479	19.3	
2010	188,491	752,129	940,620	20.0	
2015	333,251	833,156	1,166,407	28.6	
2016	341,703	898,565	1,240,268	27.6	
2017	376,200	903,164	1,272,382	29.6	
2018	414,539	919,913	1,334,452	31.1	
2019	418,252	949,030	1,367,282	30.6	
연평균 증감률(%)	'00~'10	5.94	1.10	1.89	-
	'10~'19	9.26	2.62	4.24	-
	전체	7.50	1.82	3.00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육류 소비행태 변화와 대응과제’, 2021.)

스페인산 이베리코의 등장으로 양돈업계에 돈육 고급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소비자는 삼겹살, 목살과 같은 구이용 선호부위 구매 시 국산과 수입산에 차등을 두지 않고 맛과 품질에 따라 결정한다.

한돈산업의 고급화가 시급하다. 흑돼지도 마찬가지이다. 한돈산업이 고급화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확실한 목적의식을 갖도록 한 계기는 누가 뭐래도 이베리코 돼지고기의 등장일 것이다. 때문에 고급화의 방향을 이베리코에 대적할만한 한돈 품종을 발굴, 육성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도 고급화 방안을 모색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고급화의 중요한 목적이 수입산과의 차별화에 있는 만큼 어디에도 없는 우리 고유의 품종은 한돈의 차별화와 고급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한돈은 우리 땅에서 자라지만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우리 돼지라고 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2. 1. 6.]

제주 흑돼지는 일반 백돼지보다 관광객에 의해 가격형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연구자가 인터뷰한 양돈 농가 대부분은 흑돼지와 백돼지를 같이 키우고 있었다. 제주에서 흑돼지만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농가는 소수이다.

“흑돼지단체 정도. 스물 몇 농가. 25농가는 흑돼지만 100프로 하는 곳만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데는 흑돼지가 10% 있다고 해도, 흑돼지가 안 좋을 땐 없었다가 이젠 60% 이런 데도 많거든. 그런 곳은 흑돼지생산자단체⁴⁹⁾가 아니고.”

제주 이외에도 남원, 산청, 함양 지역 등에서 흑돼지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국립축산원은 ‘우리흑돈’을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분양하기 시작했다. 흑돼지가 가진 제주다움을 부각시킨 브랜드화의 영향으로 흑돼지에서 ‘제주’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크다. 제주의 ‘청정’ 이미지와 문화관광적인 요소를 앞세워 브랜드 이미지를 정착시켰다.

“육지 많이 안 나가. 육지는 믿지 못하는 거 같아. 왜 육지는 안 되는지 모르겠어. 육지도 흑돼지농장 많아. 지리산 흑돼지도 있고, 그런데 흑돼지는 제주도 이미지가 많아서 코로나 터지고 관광객이 적어서 흑돼지가 소비가 없어서 완전 떨어졌⁵⁰⁾. 돼지열병 같은 병이 돌 때는 오히려 올라가 제주는 청정지역이어서”

49) 25개 흑돼지 사육농장으로 구성된 제주흑돼지생산자회는 제주 흑돼지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한국농정신문, 2017.5.2.)

흑돼지만을 사육하지 않는 이유는 방문 관광객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의 불안정성, 백돼지에 비해 낮은 생산성에 있다. 따라서 가격이 안정적인 백돼지를 같이 사육하며 농가 수익의 안정성을 꾀한다.

“저희는 흑돼지도 해요. 원래는 흑돼지만 했는데 백돼지도 많이 하고 있어요. 백으로 많이 바꿨어요. 양돈하는 사람들의 아이러니이긴한데. 흑돼지가 백돼지보다 비싸긴한데 너무 안 자라요. 그래서 키로당 가격이 100원~200원 정도 차이나면 흑돼지가 손해예요. 그런데 1-2년 전부터 갑자기 흑돼지 가격이 오른거예요. 백돼지보다 천원, 이천원 정도 비싼거예요. 그럼 흑돼지 키우는게 무조건 이익이에요. 농장에서도 백돼지로 할까 흑돼지로 할까 고민을 해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많아서 수요가 많아서 흑돼지가 잘 팔려요. 흑돼지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은 흑돼지 키우는 농장이 엄청나게 유리해요.”

이와 같이 제주 관광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는 흑돼지, 제주돼지는 역설적이게도 제주 관광에서 주요 요소인 청정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분노 유출 사건 이후 환경규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취는 존재하고 양돈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사육환경 문제, 동물복지 등에 대한 인식수준이 향상되고 고품질, 안정성 육류에 대한 기대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 유통업계에서도 사육환경부터 동물복지 생산 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정부에서도 ‘동물복지 종합계획’ 등을 시행한다. 양돈은 2013년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⁵¹⁾를 도입했고 현재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등록된 양돈 농가는 17개로 경기지역에 집중돼 있다.

국민의 97%는 “공장식 축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양돈농가 10곳 중 6곳도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 코로나 직후 제주 방문 관광객이 급감하였을 때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고 흑돼지 수요와 가격이 상승했다고 한다.

51)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양돈농가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어웨어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공장식 축산과 돼지·산란계 등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97.2%가 공장식 축산 개선에 동의했으며 응답자의 90%가 “농장동물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양돈농가 134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양돈농가의 60.4%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양돈농가들의 절반 이상은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의율은 일반 국민이 답한 것보다는 낮았다. 양돈농가들은 “농장동물 복지를 지금보다 향상시켜야 한다”는 문항에 64.9%가 동의했다. 이는 국민인식조사에서 같은 문항에 대해 나타난 동의율 90%보다 25.1%포인트 낮은 수치다.

양돈농가들은 동물복지농장 전환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은 ‘초기비용 부담’(75.3%), ‘수익률 우려’(49.4%), ‘돼지 사양 관리의 어려움’(48.1%), ‘판매처 확보 어려움’(32.1%), ‘정보 및 경험 부족’(27.2%) 등을 꼽았다. 양돈농가 중 농장 운영 경력이 긴 경우일수록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농장동물의 건강, 복지 등 인도적인 관리에 책임을 가져야 할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는 ‘생산자’라는 응답이 8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48.5%), ‘소비자’(21.6%), ‘유통업자’(17.9%)등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출처 : 경향신문, 2021.11.16.]

양돈의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수가 미미한 이유는 수익성에 있다. 동물복지 농장을 위해서는 관행 축사 대비 2배 정도의 공간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운영비가 상승하지만 사육두수는 이전과 같고 출하가격 또한 일반돼지와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제주를 대표하는 상품인 제주 흑돼지가 갖는 의미를 제주도의 돈육 브랜드화 정책, 유통정책, 관광산업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여 알아보았다.

제주 흑돼지는 관광음식뿐만 아니라 돛통시, 똥돼지, 토속음식 등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콘텐츠화되었다. 흑돼지가 제주를 대표하는 이미지 또는 상품이 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제주도정 차원의 양돈산업 육성정책과 관광산업의 성장 등이 있다.

제주 흑돼지는 2000년대 이후 민간 기업 주도가 아닌 제주형 HACCP-FCG 육성, 제주 돼지고기 인증 제도 등 제주도정의 정책을 바탕으로 돈육 브랜드화가 진행되어 왔다. 1960년대 제주관광개발을 필두로 관광산업을 뒷받침하는 1차산업인 축산업, 양돈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1990년대에 이르러 양돈산업은 대일수출을 통해 외화획득의 창구가 된다. 2000년대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고, 국제자유도시를 표명한 이래 내외국인 방문객의 증가로 흑돼지 소비 또한 증대되었고 흑돼지는 관광문화 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 흑돼지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정’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 금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양돈농가의 유통망을 보호한다.

제주의 대표 문화·음식 자원인 흑돼지 또는 흑돼지 고기는 양돈장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개발 진행 과정 속에서 정책적인 보호와 브랜드 이미지 구축, 축산정책, 관광 개발, 방문객 유입 등 여러 주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의미화 될 수 있었다.

제주에서는 1960년대 이시돌협회 등의 노력으로 현대화된 양돈산업 구축이 본격화되었으며, 제주도의 축산업 진흥 정책에 힘입어 1990년대에 축산단지가 조성되고 양돈산업의 전업화가 시작되었다. 양돈산업에서 실제 돼지를 사육하는 주체인 양돈농가는 2000년대 이후 구조적 변화를 겪으며 후계농, 이주노동자 등의 새로운 주체가 등장한다.

농업과 마찬가지로 제주 양돈업에서도 농장주 고령화로 인해 농장 매매 또는

처분의 이슈가 발생한다. 제주 양돈장의 경우 악취 및 분뇨 문제에 따른 환경규제와 민원 등으로 인해 축사 신축 또는 증축이 어렵다. 또 규모화된 초기 시설 자본 비용이 높기 때문에 신규로 양돈업에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로 가족 승계로 인한 양돈장 운영의 지속을 기대하지만, 2세대가 승계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료기업 등에 매매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한국의 가족중심 농장 운영으로는 양돈장 운영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법인 경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법인화 등을 통해 ‘농장 전문 경영인’을 둔 경영방식의 변화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농장주의 고령화로 인해 후계농이 등장하고 단순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내국인에서 이주노동자로 대체된다. 현재 양돈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그들의 주요업무는 사료관리, 배분, 분뇨처리 등의 단순업무로, 한정적이다.

일본 또한 저출산 고령화·과소화(過疎化)로 의한 인력 부족에 대해 외국인 노동력에 주목한다. 일본의 축산농업 분야에서는 이미 낙농을 중심으로 2년간 3천명 이상의 외국인 기능실습생이 받아들여지고 있다.⁵²⁾ 일본의 경우 다양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고졸자 중심의 실습생뿐만 아니라 기술, 인문 지식, 국제 업무 등 특정기능 등이 있다. 한국 또한, 현재 E-9비자에 의존하여 축사에서 단순 업무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기대하고 그들의 고용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용 방식과 경영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후계농이 생각하는 승계의 이유와 향후 양돈장 운영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승계의 가장 큰 이유는 축산업, 양돈산업의 수익성과 관련이 있었다. 또 승계자들은 환경규제 등으로 인한 양돈장 운영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염려하고 부모세대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환경규제에 대처해 나가고 있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귀국 후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한국을 선택했고, 현재 환경에서 이주노동자 개인 및 농장주 성향에 따라 커

52) 農畜産業振興機構令和2年度畜産関係学術研究委託調査"肉牛繁殖・肥育経営および酪農経営における外国人労働力の役割" 調査報告書, 일본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 www.alic.go.jp.

뮤니티 활동을 하거나 가족과의 연락 또는 휴대폰 등을 통한 영상시청 등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인터뷰할 수 있는 축산농가 및 양돈농가 등은 한정적이었다. 대부분 시설이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농가를 방문했기 때문에 농장주와 이주노동자의 관계 등이 큰 대립 없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또한 경영주와 이주노동자를 교차 인터뷰할 때에도 의사소통이 안 된다며 농장주가 옆에서 대신 설명하는 경우 등의 인터뷰 환경의 제약과 한계가 존재했다.

본 논문의 질적 자료는 긴 시간을 두고 주기적인 변화 관찰이 아닌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참여관찰 및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한계는 뚜렷하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장기간의 참여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 1세대 농장주와 후계농, 농장주와 이주노동자의 관계변화 및 갈등관계, 일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양돈장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승계문제는 전수조사 등을 통해 축산 또는 양돈 승계 관련 제주지역 단독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이후 제주도정을 중심으로 진행된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흑돼지의 브랜드화와 돼지고기 유통 정책 등을 토대로 굳건한 제주의 대표 음식, 관광문화 상품이 된 ‘흑돼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고품질의 수입산 흑돈과 ‘우리 흑돈’⁵³⁾의 보급으로 흑돼지의 대중화가 예상된다. 제주 흑돼지는 가격형성에 있어 관광객 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그에 따른 가격의 불안정성으로 흑돼지만을 생산하는 농가는 소수이다. 제주 흑돼지가 단지 음식이 아닌 일종의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관광객의 수에 따라 변동하는 흑돈 가격을 통해 그 상관관계를 알 수 있었다.

최근 사육환경 개선이나 관리기준 강화,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주 흑돼지의 경쟁력인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주의 1차 양돈산업은 역설적이게도 제주의 ‘청정’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상명 분노 배출 사건 이후에 양돈업계의 악취절감 및 양돈분뇨 처리, 사회공헌 활동 등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과 제주

53) 국립축산과학원은 2015년 개발한 흑돼지 '우리흑돈'을 연 1~2회 분양 수요조사를 실시해 전국 26농가에 581마리를 직접 분양했다.

도정의 강화된 환경규제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악취는 존재하고 양돈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존재한다. 그러나 제주경제에서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양돈산업을 단번에 축소하거나 양돈단지를 이동하는 것은 불가하다.

양돈산업의 문제는 ‘악취’만이 있고 이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는 것은 양돈산업의 도드라진 일부 단면만을 바라보는 일이다. 제주의 흑돼지는 제주의 자연환경, 양돈산업 육성 정책, 제주 관광 개발과 그로 인한 흑돼지의 관광문화·음식 상품화, 공장식 축사를 운영하는 농장주, 농장을 승계하는 다음 세대인 후계농, 돼지와 제일 가까워서 마주치며 일하는 이주노동자, 유통업계 등 여러 주체들이 연관되어 만들어진다. 고품질, 특색있는 돼지고기를 원했던 소비자의 인식도 ‘동물복지’를 생각하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생산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제주 양돈산업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제주와 공생하며 지속 가능한 방안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차자료

<국내자료>

- 농림부. “2004 축산물 브랜드 육성 추진계획”
- 농림부. “2007 축산물 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농촌진흥청.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조사”
- 농촌진흥청. “2015년 축산 영농승계자 실태 및 의향”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통계”
- 대한한돈협회. “2010 양돈 경영실태조사”
- 대한한돈협회. “2014 전국 한돈농가 경영실태조사 발표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주요행정통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 제주특별자치도. “2017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 제주특별자치도. “2021 제주 환경보전을 위한 도정정책 방향 도민 인식조사”
-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동향조사”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의 축산물 유통”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 통계청. “2020 통계로 본 축산업 구조 변화”

< 국외자료>

- 일본양돈협회. “2021 양돈농업실태조사보고서”
-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2020 육우번식·비육경영 및 낙농경영에 대한 외국인 노동력의 역할” 조사보고서”

논문 및 단행본

- 강수경. "제주지역 돼지고기 음식문화의 전통과 변화." 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1. 제주도
- 강태숙. 제주축산사.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2007.
- 강혜정. "연구논문 : 영농승계자 보유 농가의 특징과 시사점." 농업경영정책연구 35.4 (2008): 829-848.
- 김다영. "양돈농장 경영 지속의 영향요인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20. 서울
- 김자경. "커머닝 개념을 통한 마을의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로컬리티 인문학 0.17 (2017): 87-117.
- 김진영. "IMF와 제주사회." 제주리뷰 -4 (1998): 57-71.
- 김태경. "브랜드 돈육의 브랜드-아이덴티티 확립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3. 서울
- 그린매거진. "어디를 구워도 맛있는 돼지고기, 난축맛돈". 2020.
- 대한한돈협회. "월간한돈"
- 박민선. "한국농업의 구조변화 -200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분석을 중심으로-." 협동조합경영연구 37.- (2008): 1-28.
- 박인희 외. "젊은 축산 ! 후계자 육성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2016): 853-889.
- 백승민. "제주 네팔 노동자의 이주 맥락과 적응 양상."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0. 서울
- 석주명, 제주도수필. 서귀포 문화원, 2008.
- 송인주. "세계화 시대 한국의 농업 산업화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서울
- 송인주. "한국 산업축산의 발전과정 : 구조적 생태문제의 세계사적 연원." 환경사회학연구 ECO 22.2 (2018): 225-266.
- 양인하, 정순여. "제주 음식관광 관련 의미연결망 분석 :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영컨설팅연구 20.1 (2020): 85-95.
- 유찬희 외. 농업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과제. 진라남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 윤두진, 한성일, 김기현. "돈육브랜드 속성에 관한 연구." 농업경영정책연구 38.3 (2011): 424-448.
- 윤명희. "제주지역 외국인 선원의 이주와 적응." 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2. 제주도 이병렬 외.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3.
- 이상철.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社會科學과政策研究 9.1 (1987): 31-66. 개발정책 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 이주인권연대. 노비가 된 노동자들, 2014.
- 정민국 외. "육류 소비행태 변화와 대응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 (2020): 1-240.
- 정수남, 이창호, 김지희. "모호한 경계, 전가된 희생 : 제주지역 네팔이주노동자의 건강행동과 사회문화적 역학관계." 지방사와 지방문화 22.2 (2019): 387-447.
-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농업 고용노동 현황 및 정책 방향, 2017
-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경제·사회분야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2019
- 제주특별자치도.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1", 2009
- 최승준, 강태숙. "제주지역 수출돈의 현황 및 생산농가의 경영분석." 動物科學論叢 14.1 (1999): 115-133.
- 최현호 외. "축산 영농승계 실태 및 의향에 관한 연구." 농업경영정책연구 44.2 (2017): 257-277.
- 팜인사이트. "농장에서 식탁까지"(37호), 2020.
- 하갑래.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변천과 과제." 노동법논총 22.- (2011): 333-389.
- 한국은행.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인증브랜드 마케팅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2017.
-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 "관광물가지수 산출을 통한 제주지역 관광물가 현황 평가 및 시사점", 2016
- 황정임 외. "외국의 농가 경영이양 지원 제도 고찰." 농촌지도와 개발 21.4 (2014): 939-965.
- 황정임 외. "농가 경영이양에 대한 영향요인." 농촌지도와 개발 25.2 (2018): 57-70.

신문기사

<경향신문>

2021. 11. 16. 「국민 97% “공장식 축산 개선 필요”, 양돈농가 10곳 중 6곳도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 희망”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111161429001>)

<서울경제>

2003. 12. 10. 「생산·소비자 ‘윈윈’ 효과 선호」
(<https://www.sedaily.com/NewsView/1HU3R7Q0XN>)

<연합뉴스>

1997. 3. 26. 「南濟州군, 토종 흑돼지 특산단지 조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232443?sid=102>)
2011. 2. 23. “제주 음식점 소·돼지고기 반입허용 건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926553?sid=102>)

<제주의 소리>

2013. 12. 20. 「“제주돼지 비싸도 너무 비싸” 육가공업체 ‘휴업」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38378>)
2021. 8. 15. 「10년 간 제주도 양돈장 16% 감소, 돼지 숫자는 증가」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2447>)

<중앙일보>

2000. 1. 5. 「제주산 돼지고기 도지사가 품질보증」
(<https://www.joongang.co.kr/article/3862127>)

<축산신문>

2016. 5. 9. 「돼지 1천두가 전업농? “기준 재설정해야」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100858>)

<한국농정신문>

2017. 5. 2. 「제주 흑돼지로 종자주권을」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0075>)

<한라일보>

2018. 08. 15. 「10년간 제주도 지역 양돈장 35개 사라졌다」
(<http://www.ihalla.com/read.php3?aid=1629032701712499079>)

웹사이트

소비자시민모임 홈페이지,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이란?

(<http://www.consumerskorea.org/activity/brand/brand>)

제주양돈농협 홈페이지, 제주도새기 축제 소개

(<https://jjp.nonghyup.com:8100/user/indexSub.do?codyMenuSeq=27577557&siteId=jjp>)

JQ 홈페이지, JQ 소개

(<https://jq.or.kr/front/jpinfo/certificationmark/html.do>)

국가기록원. “전업농 육성 배경”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4825&sitePage=1-2-1>)

【Abstract】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Jeju Pork Industry since 2000 : A Case Analysis of "Jeju Black Pig"

This study includes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Jeju pork industry since 2000s through the process of commercialization of Jeju black pork.

Since 2000, the black pork has become a representative product of Jeju, highlighting the clean image of Jeju. In Jeju, the black pork is not only the pork food raised in a pig farm, but also has a complex meaning such as Jeju's representative image and tourism culture content. A Case Analysis of Jeju Black Pig provides an opportunity to consider in connection with changes in Jeju society, such as tourism development around 2000 and the designation of free International City and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addition, it considers the current meaning of black pigs and the future of the Jeju pork industry by examina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policies of Jeju, social changes, the next generation farmer, migrant workers, consumers, and tourists.

Through participatory observation, this study examined changes in the workforce structure along with the emergence of new subjects such as migrant workers and the next generation farmers at the pig farm and ongoing succession problem and manpower shortage.

Jeju pork industry, which is deeply linked to Jeju's "clean" image, tourism industry, and economy, is pointed out as a cause of environmental problems related to odor and manure treatment, and village disputes. The focus is only

odor and excrement treatment on solving those problems. The above problems does not only arise from pig farms. It is necessary to examine Jeju tourism, livestock policy, consumption patterns of meat, and changes in production sites, and to consider the problem through discussions with various subjects.